

速記界

第 14 號



會 協 記 速 韓 大 團 社
法 人

3	<卷頭言> 記錄報國의 矜持를	會長 金龍泰
4	研究：會議錄作成上의 문제점과 개선책	崔錫模
10	第4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宣傳部
12	<紀行> 東南亞旅行	理事長 金永善
17	★ 르뽀 ★ 가나안農軍學校	柳承寬
22	<座談會> 先後輩와의 放談 —人間關係를 中心으로—	
28	<隨想> 自畫像	盧熙南
	生活의 自覺	鄭明順
31	<詩> 어두워질때	河良培
32	第7回 定期總會	
36	☆ 用語解說	研究委員會
37	○ 소식을 알립니다	
	39	○ 第 5, 6回 速記士 資格技能檢定試驗合格者
	27	○ 速記席
	38	○ 速記에 關한 相談
	40	○ 會務日誌
	42	○ 原稿募集
	43	○ 編輯記



哀
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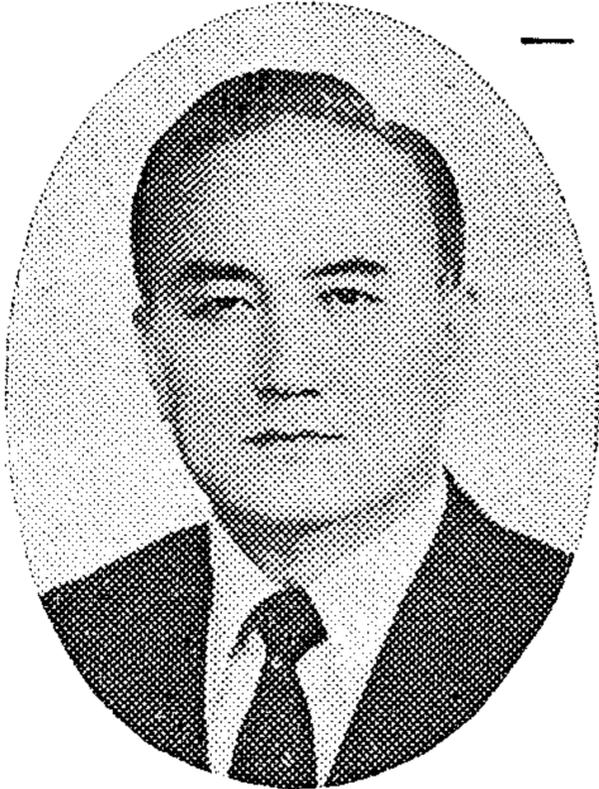
金東遠

織星昨夜落漢城
驚天動地痛哭聲
正當博愛生前事
忠烈衷心死後名
萬人祖送歸北邙
別淚重疊泰山輕
千秋此恨憑何問
寂寞江山一鳥鳴

—故陸英修女史를追慕하며—

記錄報國의 矜持를

— 協會創立 5週년에 부쳐 —



會長 金 龍 泰

지금 우리는 10月維新의 大課業을 달성하기 위해 國力의 배양과 아울러 모든 國民의 總和로 즐기찬 前進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過去에 險難했던 歷史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民族中興을 이룩해서 보다 잘사는 繁榮된 나라를 만들어 後孫에 물려 주려는 것입니다.

全國의 速記入 여러분!

이렇듯 급속히 發展하는 祖國의 脈搏속에 速記文化의 꽃을 피우기 위해 大韓 速記協會가 社團法人으로 出帆한지도 다섯돌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協會에서는 速記術의 大衆普及을 위하여 短期講習用 速記方法을 考案하였고 一般人들의 記錄業務에 便宜와 迅速을 期하도록 無料講習을 實施하고 있으며 速記人들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資格檢定試驗 그리고 速記競技大會를 실시하는등 많은 事業을 어려움가운데에서도 大過없이 꾸뚝하게 밀고 나온 것은 오로지 會員 여러분의 相互協調와 아울러 國會事務處를 비롯한 關係機關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速記文化의 暢達이 있기 위해서는 創意性있는 業務遂行과 速記能力의 向上 速記術의 研究發展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記錄報國에 이바지하고 後世에 부끄러움이 없는 史料를 남기겠다는 투철한 正心 자세가 확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知足常樂이라 한 것은 幸福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듯이 愛國하는 길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各者가 職場에서 맡은바 所任을 謙虛한 자세로 충실히 遂行하는 것이 평범한 愛國者의 像입니다. 항상 記錄報國한다는 矜持를 가지고 또한 健康管理에도 힘써 언제나 밝고 명량한 生活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며 協會創立 5週年을 自祝하는 바입니다.

會議錄作成上の 問題點과 改善策

— 外來語表記를 中心으로 —

崔 錫 模

時代의 변천에 따라서 言語도 國際交流의 性質을 가지고 있다. 國語중에도 많은 外國語의 單語가 外國으로부터 들어온 말이 한 나라의 말의 語彙가운데 파고들어 歸化하여 使用되고 있다.

이와같이 VISA없이 移民을 와서 定着한 歸化語를 外來語라. 이르며 간단히 말하여 「外國 말로서 國語에 쓰이게 된 말」이다.

국어 맞춤법을 바르게 쓰려면 外來語에 대한 맞춤법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外來語는 國語의 一種으로 아주 歸化해 버린 것이니까 原語의 發音보다도 그 나라 言語社會에서 行해지는 표준되는 發音을 정확히 表記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學校와 社會間의 確定된 外來語表記方法이 없어서 國會會議錄作成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다. 即 學校에서의 外來語表記와 新聞, 雜誌社의 表記方法의 相異는 물론이러니와 新聞社마다의 外國語, 外來語表記方法의 相異에서 오는 一般讀者 내지는 國民의 啓導策이 필요한 時點에 到達한 것 같다.

外國語의 音價가 한글로서 도저히 정확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社會의 거울이라고 일컫는 言論機關에서도 統一된 表記方法이 採擇되었으면 한다.

뉴스(news)와 타이프(type)

news[nju:z]의 例는 長音의 表記方法인데 長音을 “—”로 表示하는 것은 日本式(ニコール)이라는 點 뿐만 아니라 이 부호를 글자로 읽으면 “으”나 “이”가 되지 결코 長音이 될 수 없다.

오오로(完) <杜詩諺解二二, 11>

아아늘(知) <杜詩諺解後刊本八, 56>

보오오니(見) < “ ” 三, 30>

와 같은 歷史的 方法을 고려하여 長音으로 적어야 할 音節의 母音을 거듭하여 씀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方法이다. 그러므로 “뉴스”는 “뉴우스”로 써야 옳은 맞춤법이 된다.

type[taip]의 例는 “타입”이라고 “ㅍ” 받침을 하는 일이 있는데 비록 原語의 發音을 정확히 적었다 하더라도 그 “ㅍ”은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만다. 만일 그 “ㅍ”이 事實의 音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

된다. 國語의 發音으로는 “타읻”이 아니라 “타이프”이다. 그러므로 “type”은 “타이프”로 적어야 옳은 表記이다.

타읻 { 이
에
을
으로
이다 } 타이프 { 가 이 말이 國
에 語의 어떠한
를 文章속에 들
로 어가서 쓰일
다 때 無意味한
것이다.

이 뜻은 결국 “타읻”이란 말의 끝소리가 “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우리말에 섞인 外國語는 中國에서 들어온 漢文語, 印度에서 들어온 梵語, 日本에서 들어온 말, 西洋에서 들어온 말, 南阿, 南美에서 들어온 말들이 多種多樣하다. 그리하여 外來語가 日常生活用語인데도 한글사전마다 그 表記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辭典의 外來語表記 例

原 語	동아세계국어사전	국어대사전 (이희승편)	표준국어사전 (신기철, 신용철 편)
gasoline	○ 개솔린	가솔린	가솔린
gas	○ 개 스	가 스	가 스
nylon	나이롱	○ 나일론	나일롱
news	뉴 스	○ 뉴우스	뉴 스
diamond	○ 다이어먼드	다이아몬드	○ 다이어먼드
dollar	달 라	○ 달 러	달 라
dancer	○ 댄 서	○ 댄 서	댄 서
dam	댐	○ 댐	○ 댐
double	○ 더 블	○ 더 블	다 블
delicate	○ 델리키트	델리케이트	○ 델리키트
truck	트럭, 추 럭 (원말)	○ 트 럭	트럭
drama	드라마	○ 드라마	○ 드라마
restaurant	레스토랑	○ 레스토랑	○ 레스토랑
music	뮤지크	뮤우직	○ 뮤 직
bus	○ 버 스	○ 버 스	빠 스
broker	○ 브로커	브로우커	○ 브로커
cider	사이더	○ 사이다	○ 사이다
smooth	스무드	○ 스무우드	스무드
advice	○ 어드바이스	어드바이드	(참고) 어드바이저
observer	○ 옵서버	업저어버	○ 옵서버
television	텔레비죤	○ 텔레비전	○ 텔레비전
position	퍼지션	○ 포지션	퍼지션

※ ○표는 國會會議錄作成에 있어서 採擇된 것임.

또한 今年 7月 9~10日字 몇개 新聞의 外國語(外來語)表記도 다른것이 있어 여기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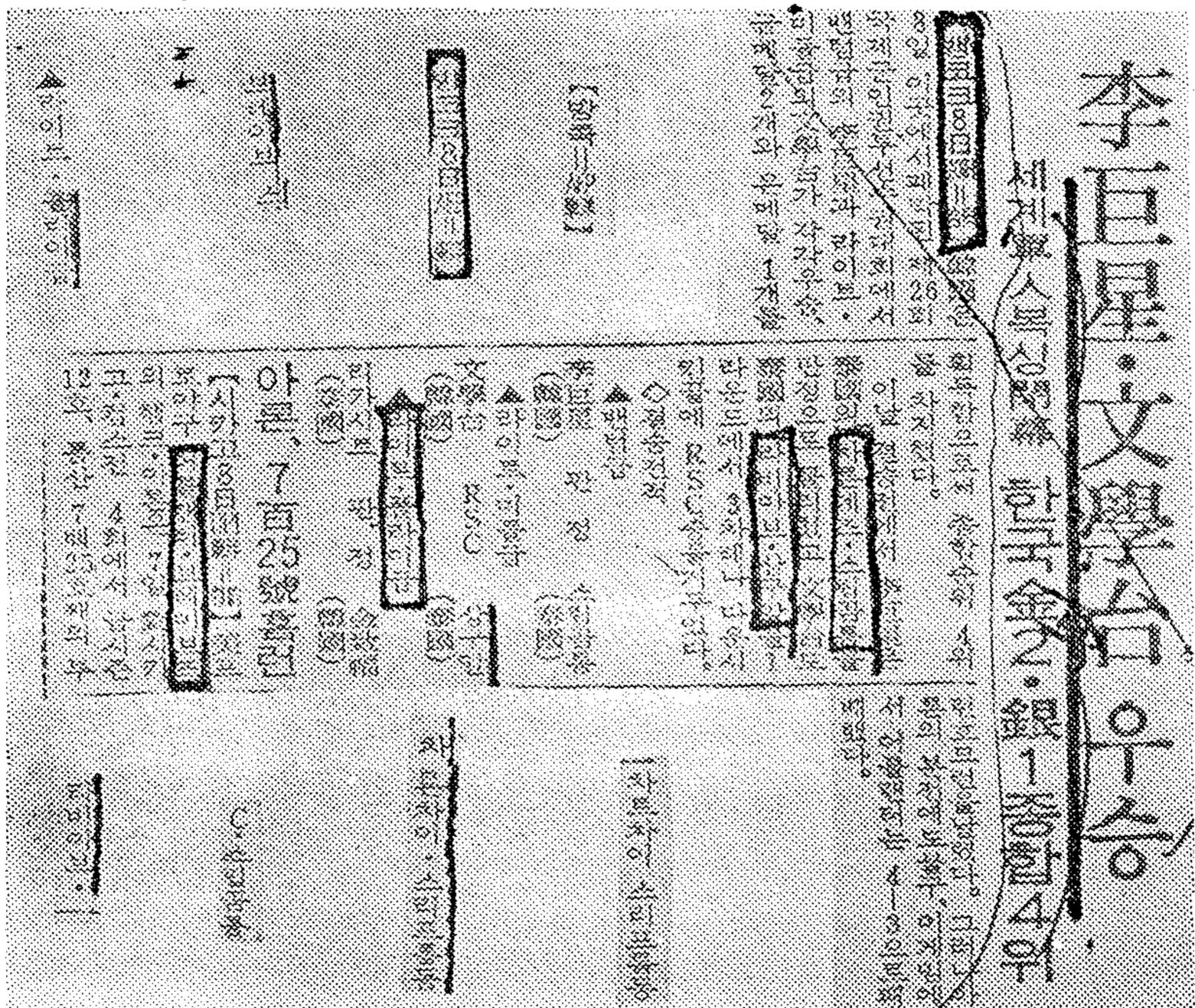
7/9	동아	방콕
7/10	조선	방콕
7/9	중앙	방콕
7/10	한국	뱅크크
7/10	日刊스포츠	방콕크
7/9	신아	방콕

7/9	동아	라비아브 · 상누안
7/10	조선	라비아브 · 상구알
7/9	중앙	R · 상구알
7/10	한국	라비아 · 브상구알
7/10	日刊스포츠	라비아브 · 상누안
7/9	신아	라비아브 · 상누안

7/9	동아	차른차이 · 스티프롬동
7/10	조선	차른데즈 · 스티프롬동
7/9	중앙	C · 스티프롬동
7/10	한국	차른데즈 · 스티프롬동
7/10	日刊스포츠	차른차이 · 스티프롬동
7/9	신아	차트차이 · 스티프롬동

7/9	동아	라이트 · 플라이
7/9	중앙	라이트 · 플라이
7/10	한국	라이트 · 플라이
7/10	日刊스포츠	라이트 · 홀라이
7/9	신아	라이트 · 플라이

7/9	중앙	어틀랜더 · 브레이브즈
7/10	한국	어틀랜더 · 브레이브즈
7/10	日刊스포츠	어틀랜더 · 브레이브스



특히 人名, 地名表記의 경우 文敎部の 「편수자료」는 「토오쿄오」(東京), 「뉴우요오크」(New York), 「카토오 키요사마」(加藤清正) 등으로 初中高大學의 國定教科書에 表記하나 國會會議錄作成上에 있어서의 表記에는 不適合한 面이 있다.

國會의 경우에는 發言者의 學職, 人格 素養등등에 따라서 外來語의 發音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만 記錄하는 速記士의 立場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原則下에서 國會의 실정에 맞게 表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질서정연하고 늠름한 儀仗隊의 查閱을 볼때 그중 단 한 사람의 손 놀림의 잘못이 一般觀客의 눈에는 제일 먼저 비친다 또한 全國體典 入場式때의 隊와 伍의 整然함은 물론 그 발맞춤의 正確性에 한 사람의 틀림이 發見되었을 때 入場客의 눈 초리에 제일 먼저 發見되는 현상이 會議錄作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6장 들은말(외래어) 표기

제60항 들은말을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② 포음 주의를 취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原語의 綴字나 發音을 골똘하게 記錄하려 들지 말고 되도록이면 原語의 發音에 가깝도록 적되 앞에 예든 “뉴우스와 “타이프” 이 두가지 制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原則으로 外來語를 表記하여야 할 것이다.

1. 받침은 ㄱ[k, g], ㄴ[n], ㄹ[l, r], ㅁ[m], ㅂ[p, b], ㅅ[t, d], ㅇ[ŋ]의 7가

지만 쓴다.

book 북→북 step 스텝→스텝 Marx
막스→막스 goodbye 굳바이→굿바이
chocolate 초코렐→초코렛 battery 발테
리→뱃테리

2. 子音앞에 있는 語頭子音은 다 “으”를 붙이어 적지 않을수 없으나 (a) 語頭音이 아닌 破裂音(p) (b) (t) (d) (k) (g)가 流音(l) (r), 鼻音(m) (n) 앞에 있을 때에는 “으”를 붙이어 적고, (b) 그 이외의 子音 앞에 있을 때에는 “으”를 붙이지 않는다.

(a) [maikrəfon] 마이크로폰

[ɔ:striə] 오스트리아

[skɔtlənd] 스코틀랜드

[magne] 마그네

[hopman] 호프만

(b) [helikoptə] 헬리콥터

[bækti:riə] 박테리아

[rokfelə] 록펠러

[ælegzandə] 알렉산더

[i:dʒipt] 이집트

다만, (a) 摩擦音 (f) (v) (θ) (ð) (s) (z)와 유음(r)가 자음앞에 있을 때에는 “으”를 붙이어 적고, (b) 鼻音 (m) (n) (ŋ)가 자음앞에 있을 때에는 “으”를 붙이지 않는다.

(a) [difθiriə] 디프테리아

[æfrikə] 아프리카

[eskimou] 에스키모

[ru:svelt] 루우스벨트

[krisməs] 크리스마스

[riðm] 리듬

[ɛ:bərt] 에에베르트

(b) [kələmbəs] 컬럼버스

[olimpia] 올림피아

[æntenə] 안테나

[liykən] 링컨

③ 유음(l)이 (a) 두 모음 사이에 있을 때에는 르르로 적고, (b) 모음과 자음 사이에 있을 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

(a) [gæli-liou] 갈릴레오

[melə-di] 멜로디

[peni-silin] 페니실린

[prə-pelə] 프로펠러

(b) [æ-lps] 알프스

[bil-di] 빌딩

④ (a) (/)가 모음앞에 있을 때에는 모음에 따라 샐, 셔, 쇼슈로 적고 [b] [tʃ] [dʒ] [ʒ]가 모음 앞에 있을 때에는 ㅈ, ㅊ으로 적는다.

(c) 다만, 독일어의 철자 z의 발음(ts)는 ㅈ(쯔)으로 적는다.

(a) [ʃu-ibert] 슈우베르트

[ka-ine-iʃən] 카아네이션

[ʃo-paŋ] 쇼팡

[blaŋ-ʃar] 블랑샤르

(b) [tʃə-tʃl] 처어칠

[tʃe-lo] 첼로

[dʒ:ɔdʒ] 조오지

[televi-ʒən] 텔레비전

[dʒefə:sn] 제퍼어슨

(c) Zelt[tse-lt] 켈트

Rätsel[re:tsəl] 레어첼

(5) 語末音의 자음은 “으”모음을 붙이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되 (a) 그 음이 短母音 다음의 경우는 받침으로 적으나 (b) 長母音 重母音 다음의 경우는 “으”모음을 붙이어 적으며 (c) 한 음절의 말로서 단 모음 뒤의 [t] [d] [b] [g]는 “으”모음을 붙이지만 [p] [k]는 받침으로 적는다.

(a) [trʌk] 트러크→트럭

[i:sop] 이이소프→이이쑹

[pi-rə-mit] 피러미트→피러밋

[rə-kit] 로켓트→로켓

[so-kit] 소켓트→소켓

[doun-ʌt] 도우넛

(b) [ya:d] 야아드

[fi:t] 피이트

[rekɔ:d] 레코오드

[denma:k] 덴마아크

[haip] 하아프

[dʒip] 지이프

[tʃi:z] 치즈

[straik] 스트라이크

[keik] 케이크

[taip] 타이프

[Si-nimə-skoup] 시니마스코우프

[skeit] 스케이트

(c) [nʌt] 너트

[wat] 와트

[nout] 노트

[god] 고드

[ed] 에브

[big] 비그

[kʌp] 컵

[buk] 북

다만, 모음 다음의 語末子音 가운데서 (a) 鼻音 [m] [n] [ŋ]와 유음 [l]는 다 “으”모음을 붙이어 적지 않고 (b) 마찰음 [f] [v] [θ] [ð] [s] [z] [ʃ]와 유음 [r]는 “으”모음을 붙이어 적는다. (c) 특히 독일어의 [x]는 바로 앞 모음에 따라 적고 er(ər)는 어로 적을수 있다. 또 e의 발음부호가 [ə]인 것은 “에”로 적을 수 있다.

(a) [dræm] 드램

[prougræm] 프로그램

[ju:en] 유우엔

[pen] 펜
 [bildig] 빌딩
 [noubeɪ] 노오벨
 [kærəmel] 캐러멜
 [reɪl] 레일
 [ælkəhɒl] 알코올
 [puɪl] 푸울

(b) [græf] 그래프
 [ɔkteɪv] 옥타아브
 [ɪlɪzəbɪθ] 엘리자베스
 [haɪəsɪnθ] 히야신스
 [oʊeɪsɪs] 오아시스
 [tʃi:z] 치즈
 [blɑːʃar] 블랑샤르
 [dʒɪfɑːr] 지파르
 [baɪər] 바이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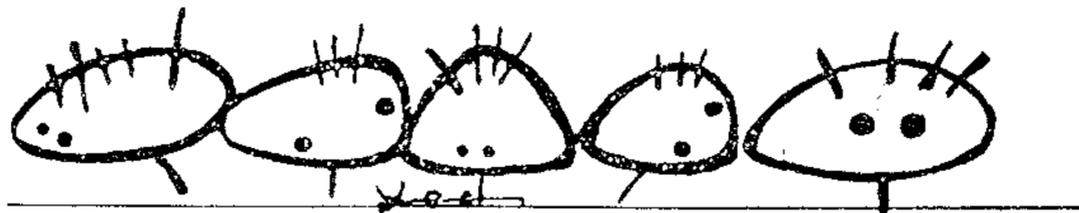
(c) [bax] 바하
 [gɒx] 고히
 Hitler[hitlər] 히틀러
 Steiner[/stainər] 시타이너
 Abend[a:bənt] 아아벤트

(6)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된 대로

적는다.

[kutsu] (일) 구두
 [nambe] (일) 남비
 [gom] (화) 고무
 [tabaco] (포) 담배
 [buddha] (범) 부처
 [Paŋ] (포) 빵
 [əkeɪʃə] (영) 아카시아
 [apa:tment] (영) 아파트
 [gæs] (영) 가스
 [nju:z] (영) 뉴스
 [reɪdiəʊ] 라디오
 [mæməθ] 맘모스
 [pianəʊ] 피아노

이 原則의 運用에 있어서 이미 慣用된 發音으로 익어버린 外來語는 國語의 표준 發音으로 적고 익지않은것은 그 原語의 맞춤법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다 그 소리 대로 적되 國語表記에 쓰이지 않는 새 받침의 音節을, 새 글자나 부호를 만들지 않는다. (國會速記課 第3係長)





第4回 全國速記人 體育大會

5月の 눈부신 太陽아래 훈풍이 마냥 싱그럽기만한 綠陰길은 農協初大의 넓고 푸른 잔디위에서 全速記人의 잔치가 올해도 盛大히 거행되었다.

이날 協會 金龍泰會長은 金鎭基副會長이 代讀한 大會長人事를 통해 「新綠의 계절에 各자 生業에 종사하느라 홀어져 있던 全體 速記人이 한자리에 모여 親睦을 도모하며 하루나마 都市生活과 긴장된 業務속에서 해방됨으로서 새로운 活力素가 될줄 믿는다. 또한 競技에 있어 勝負에 집착하기보다는 강인한 鬪志와 體力을 기르는데 意義를 찾자」는 要旨의 인사말이 있었다.

다음에 大會經過를 여러 회원에 알려 이번대회를 계기로 全會員이 相互親睦을 위하고 團結하며 다음해는 더욱 內實을 기하는 大會가 될것을 다짐해 본다.

★ 大會經過 ★

1. 日時 : 1974年 5月 5日(日)
2. 場所 : 農協初級大學(삼송리)
3. 參席會員 : 114名
4. 競技種目 : 蹴球 및 陸上競技
5. 各팀 紹介

황소팀 : 國會速記課速記 1,2擔當會員

청룡팀 : 國會速記課速記 3,4擔當會員

백호팀 : 國會速記課速記 5,6擔當會員

독수리팀 : 國會速記課 編輯擔當會員

및 기타會員

6. 對戰結果

◇ 蹴球競技

優勝 백호팀. 準優勝 청룡팀.
3位 황소팀. 4位 독수리팀.

◇ 800m繼走競技

1位 독수리팀. 2位 백호팀.
3位 황소팀. 4位 청룡팀.

◇ 공굴리기競技(女性)

1位 황소팀. 2位 백호팀.
3位 청룡팀.

◇ 만물상競技(女性)

1位 황소팀. 2位 백호팀.
3位 청룡팀.

7. 準備委員 : 本部任員

主管 事業部長 高用培

司會 監事 柳智永

渉外 國會速記課 3係長 崔錫模

8. 本大會를 위한 贊助

丁一權議長 金一封

金振晚副議長 金一封

金龍泰會長 金一封

維政會 金一封

權孝燮議員 金一封

鮮于宗源國會事務總長 金一封

金鍾浩國會圖書館長 金一封

李鎬賑國會事務次長 金一封

★ 參 觀 記 ★

○ 축구경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熱氣를 더해 本大會의 「하일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백호팀과 強팀으로 알려진 청룡팀이 決勝戰에서 격돌 無勝負를 이루고 延長戰에서도 勝負를 가리지 못하더니 결국 「페널티·킥」으로서 백호팀이 3:2로 이겨 실로 惡戰苦鬪 끝에 勝利의 월계관을 차지,

○ 全速記人の 祝祭가 今年에는 공교롭게도 날씨도 화창한 어린이날하고 겹쳐서 많은 아빠들이 아들, 딸들을 박수 부대(?)로 동원해서 꼬마들의 應援歌가 競技場에 메아리쳤는데 특히 청룡팀에 속한 어린이들은 어찌나 극성스럽게 응원을 하는지 다른 팀들은 그 대책에 腐心할 정도

○ 全會員의 비상한 관심을 끈 축구결승전의 「페널티·킥」에서는 긴장된 가운데 한글씩을 칠때마다 歡呼가 엇갈렸는데 2:2 無勝負가 되고 마지막 한글을 백호팀의 主將 申世華選手가 성공시켜 優勝컵의 向方이 결정될 때는 「게임」이 絶頂에 이른 순간이었다.

이날 申主將은 두어깨에 무거운짐을 意識해서인지 약간 창백한 모습을 한채 마지막 한글을 신중히 차넣어 成功시켰

다. 뒤이어 백호팀은 승리의 感激이 넘쳐 優勝컵에 갈색 純穀酒를 가득따라 나눠마시고는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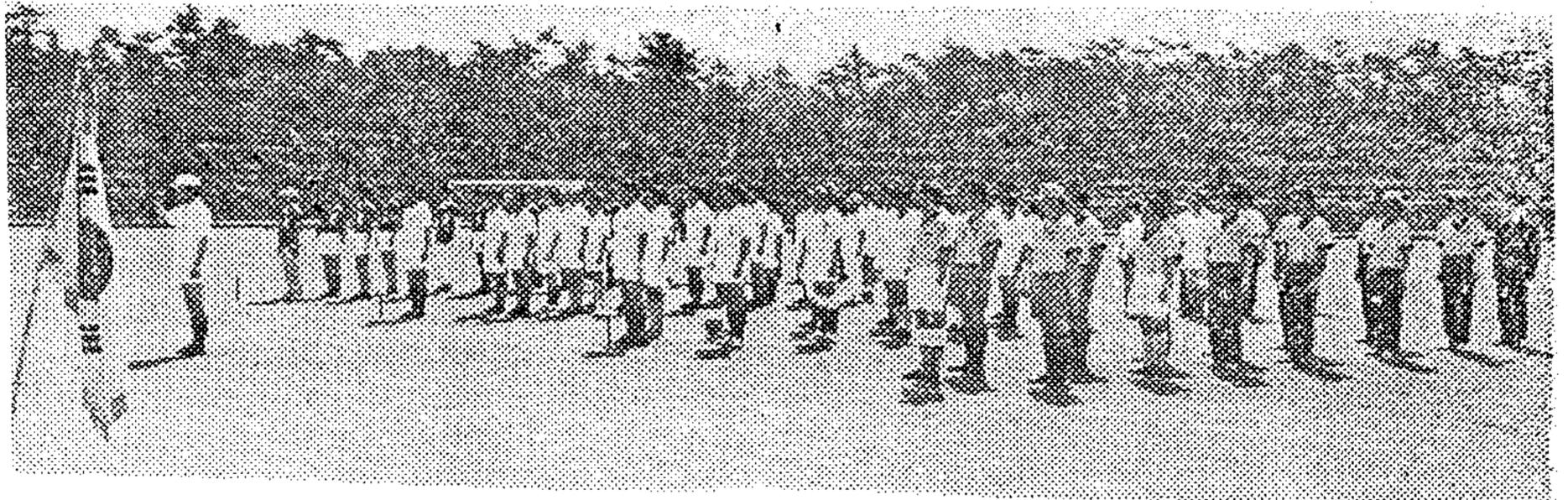
○ 女性會員들이 벌이는 공굴리기는 반환점을 공을 발로 차면서 돌아오는 競技였는데 공이 자꾸만 다른데로만 굴러가서 안타까웠고 만물상競技에서 어느 會員은 미처 봉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가하면 재치있게 봉투를 집어 같이 툴 윗어른을 소리쳐 불러서 손잡고 뛰어가는 會員도 있어 보는이마다 呵呵大笑.

○ 각자의 生業으로 자주 만날수 없었던 國會밖에 있는 많은 會員과 軍服務중인 朴順必 金銅洙會員등이 모여 오랜만에 웃음과 對話로 회포를 풀고 대거 독수리팀으로 참가 분투함으로서 親睦大會로서 효과도 100% 발휘

○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고 熱戰이던 蹴球決勝戰이 끝나자 速記人の 향연도 서서히 幕을 내리고 모두들 군데 군데 둘러앉아 本部에서 배달된 京畿特酒로 갈증같은 惜別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대회 開催를 위해 애써 일해주신 任員여러분과 物心兩面의 聲援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 깊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歸路를 재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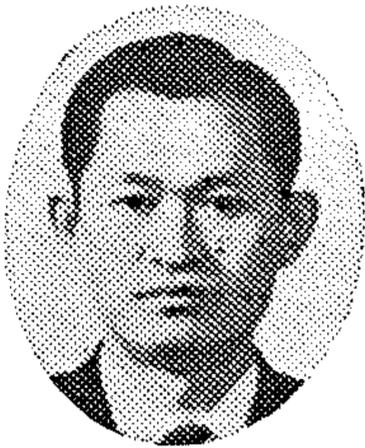
<宣傳部提供>



東南亞旅行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理事長 金 永 善



出張命을 받고 東南亞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녀온 紀行文을 써달라는 注文을 받았다. 그런데 東南亞는 이미 다녀온 분도 많고 여러 方面으로 자세

히 紹介되어 더 言及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그저 돌아본 내 나름의 所感を 적어보는 機會로 삼을 수 밖에 없다.

香港에 첫발을 딛고

6月 8日 09:30發 香港行 KAL을 탔다 세시간 후에 香港에 내려 첫 外國의 都市에 발을 디뎠다. 飛行場이 九龍半島에 있어서 바다 건너 香港섬을 보니 높은 建物이 많이 보이나 서울과 大同小異한 거리 風景이라고 느껴졌으나 첫째 다른 것은 言語가 다르고 住民들의 行動이 다르다. 香港의 住民은 대부분 中國人인데 香港居住中國人을 보고 中國人들이 香港人이라 한다. 理由는 모르겠으나 香港의 中國人學校에서는 北京語가 아닌 廣東語를 가르치고 있고 철저한 Lady First인 것으로 보인다. 英國統治를 받는 동안 異質化된 것이甚하다 해서 香港人이라고 하는 것 같다. 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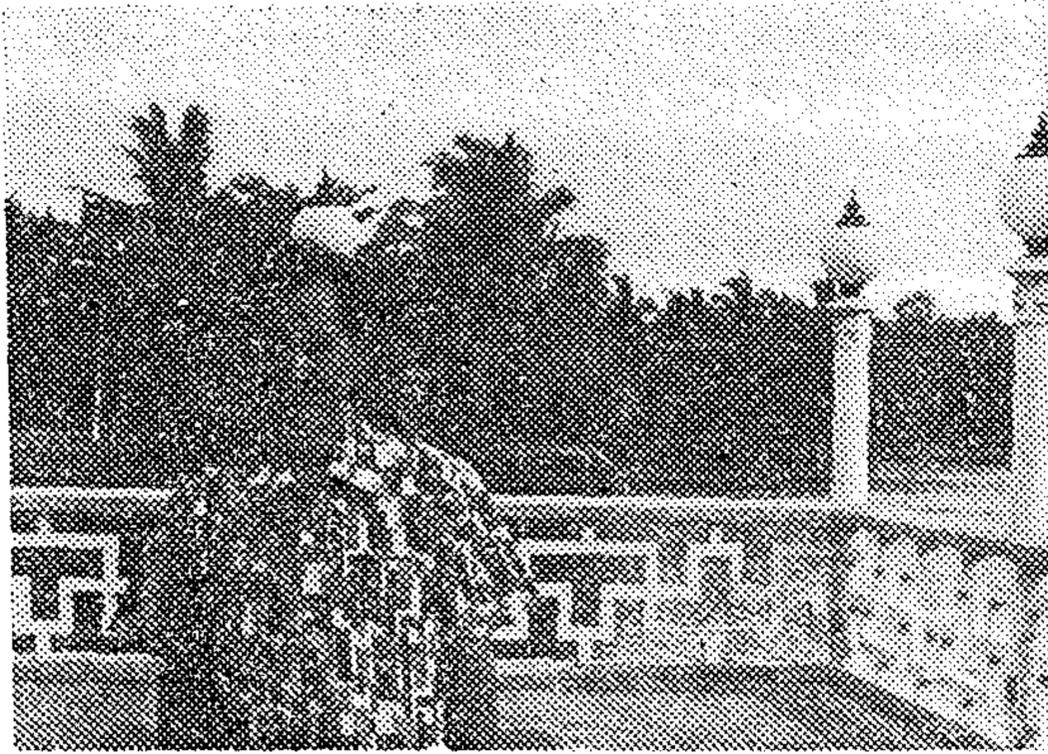
에 장바구니 들고 가는 것은 大部分 男子요 男子가 女子를 때리면 香港市民이면 즉각 裁判에 회부하고 外國人이면 外交使節이라해도 追放한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自由陣營이니 共產陣營이니 하는데 關心없고 生을 즐기는 것이 最大 課題인 것으로 보인다. 香港人이 이런 얘기를 한다. “世上에서 第一 불쌍한 사람들은 韓國人과 日本人이다 왜냐, 그 사람들은 돈벌러 태어나서 돈만 벌다 죽으니 좀 불쌍하냐”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하니까 “우리는 먹을려고 태어나서 실컷 먹다가 죽으니 幸福하지 않느냐”고 對答한다. 실제 이 사람들은 먹기위해 사는 느낌이다.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도 普通이지만 저녁은 거창하게 먹는다. 午後 6時에서부터 商街의 門이 닫히기 시작하여 10時면 거의 닫히는데 대개 저녁식사 시간이 두시간정도 걸리는 것 같다. 이때부터 먹고 마시고 대개 새벽 3시경까지 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食堂에 가보면 밤새워 營業을 하는데 처음 들어가면 冊을 한권 준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메뉴인 것이다. 웬만한 食堂이면 品目이 한 500種以上이다. 그中에서 먹고싶은 것을 찾는 것인데 漢字만가지고는 못찾겠고

漢字 옆의 英文註를 보아가면서 사전의 단어 찾는 努力의 몇배 들여야 겨우 品目, 그것도 內容도 잘 모르고 대개 짐작하는 料理를 찾게 된다. 그곳 손님들은 기본방법이 菜類하나 魚貝類 하나 肉類 하나를 시키는 것으로 부터인 것 같다. 하여간 잘도 먹는다. 그리고 性問題도 開放型이다. 東南亞 全般的인 문제인데 某映畫人이 라오스에 가서 性의 開放을 보고 우리 기준으로 볼때 말이 아니어서 戰爭하는 나라에서 너무 하지않느냐고 했더니 擔當官吏가 하는 말이 “아니 戰爭에 시달리는 것만해도 불쌍한데 이런 것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 뭣인가 재미있는것 즐길수있는 對象이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反問에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그 만큼 人生을 즐기는 것이 優先인 地域이다. 그러니까 香港에서 眼鏡을 모집해도 定員未達이라 아주 頭痛거리라 한다. 이 眼鏡이 交通整理를 하다가 車輛끼리 드리 받았다. 이것을 본 眼鏡은 슬며시 숨었다가 받은 사람과 받힌 사람끼리 解決하고 가니까 다시 나와서 交通정리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職務遺棄 아니냐 千萬에 그 眼鏡의 생각은 자기네끼리 解決하면 쉬운것을 介해가지고 복잡하게 할것 없다는 취지라니 어떻게 評價해야할찌…… 香港은 점점 中國化되고 있었다. 每年 中共과 香港政廳사이에 移民契約에 의하여 3萬名이 移住해온다. 每日 80名정도가 移住해 온다. 여기는 東南亞 아니 世界로 通하는 中共의 窓口役割도 하나까 적은 數字로 볼 수도 있으나 中國人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다. 自動적으로 中國人의 香港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물도 中共물이요, 副食 기타 中共商品이 아니면 香港人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中共의 百貨店 台灣의 百貨店 別마찰없이 잘 지내간다. 서로 共存하는 것이다. 멀리 볼 때 中國化밖에 더 있겠느냐는 태도같다

民俗村이 불만한 泰國

그 다음에 간곳이 방콕이다. 여기는 英語, 中國語, 日本語 다 잘 안 通한다. 泰國語를 해야 通하는 地域이다. 첫눈에 띄는 것이 골목을 짝 메운 車輛이다. 방콕에 自動車가 30萬臺가 있단다. 우리나라 全國의 保有臺數가 그 정도가 아닌가 싶다 거리는 또 外來品の 洪水로 보인다. 이 나라에서는 關稅만 내면 무엇이든지 들여갈 수 있고 팔수 있단다. 그러면 國民所得이 얼마냐 200弗이라니 우리는 300弗이 넘는데 가난한 모양이구나 생각했더니 泰國人의 얘기가 자기네는 남방샤쓰 하나 바지 하나 신 한 켤레면 나머지는 먹는것인데 겨울준비도 必要없고 의생활 주생활에 돈이 적게들고 먹을것 싸니 더 잘먹고 잘 산다는 解釋이다. 더워 나다니기 곤란하니 집사기前에 車부터 사는것이 順序고 방콕市內를 누비는 運河에 自家用배도 많다. 水運이 便利한 곳이다. 例컨대 8톤트럭 정도의 힘을 가진 배는 10톤 以上の 짐배 7~8척을 끌수 있으니 水運이 便利함을 實感하게 된다. 몇年前만해도 泰國에서는 移民을 막 받았다는데 지금은 받지 않는단다. 우리는 진작 많이 進出할수 있는 機會를 놓친것 같다. 泰國은 農業生産 등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고 南方다운 資源의 惠澤을 보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우리 僑胞들은 料食業이나 宿泊業정도로 장사도 큰 장사는 어려운 모양이다. 그중 큰 理由는 뿌리깊은 華商의 組織을 뚫기



<방콕에서>

힘들고 日本商人의 長期割賦 販賣앞에는 두손을 든다는 것이다. 장사도 實力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사진에 보면 外觀이 特異한 泰國의 절이지만 가보면 절뿐이고 門外漢인 내가 보기에 는 부처도 金이나 사파이어나 하는 材質문제지 製品의 藝術性은 缺如된 것 같다. 알맹이 없는 文化로 보인다. 博物館에 가보아도 짧은 歷史 現王의 八代祖가 泰國를 세웠다고 하는데 北方에서 온 武人에 의한 征服王朝가 몇 百年 계속되면서 湄남江가의 豊富한 産物로 살찐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러나 「방콕」의 泰國人들은 豊富한 外來品에 桃色질은 밤거리 싸고 혼한 먹을것들 享樂을 爲하여 世上이 存在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部類가 横行한다. 이것은 道路가의 경우고 水路가에는 옛날대로의 집들, 湄남江에서 목욕하고 그 물먹고 모든 下水는 그리로 빠지고 그래도 病들지 않는 生活을 하고 있다. 그러면 道路와 水路는 別個地域이나 하면 그렇지 않고 서로 뒤엉켜있어 새 道路가 必要하면

여기처럼 撤去도 必要없이 水路를 메우면 넓은 道路가 된다는 것이다. 방콕에 오는 外國人은 방콕郊外에 있는 民俗村을 보고 泰國를 다 본 것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民俗村에서는 在來 婚禮, 土俗춤, 소싸움, 닭싸움, 코끼리使役, 土俗建物등 이것이 泰國이요 하고 보여준다. 民俗村(Rose Garden)의 잘 정비된 환경에 도취되는 것이지 내용은 別無신통이다. 造園은 참 잘 해냈다.

여기에서도 악어가죽이 미ச்ச시인지 악어를 양식하고 있고 近郊의 農園은 주위에 야자나무가 서있고 밭에는 바나나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 힘들지 않는 農業으로 편성되어있다고 판단했다. 진작 우리가 進出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안고 방콕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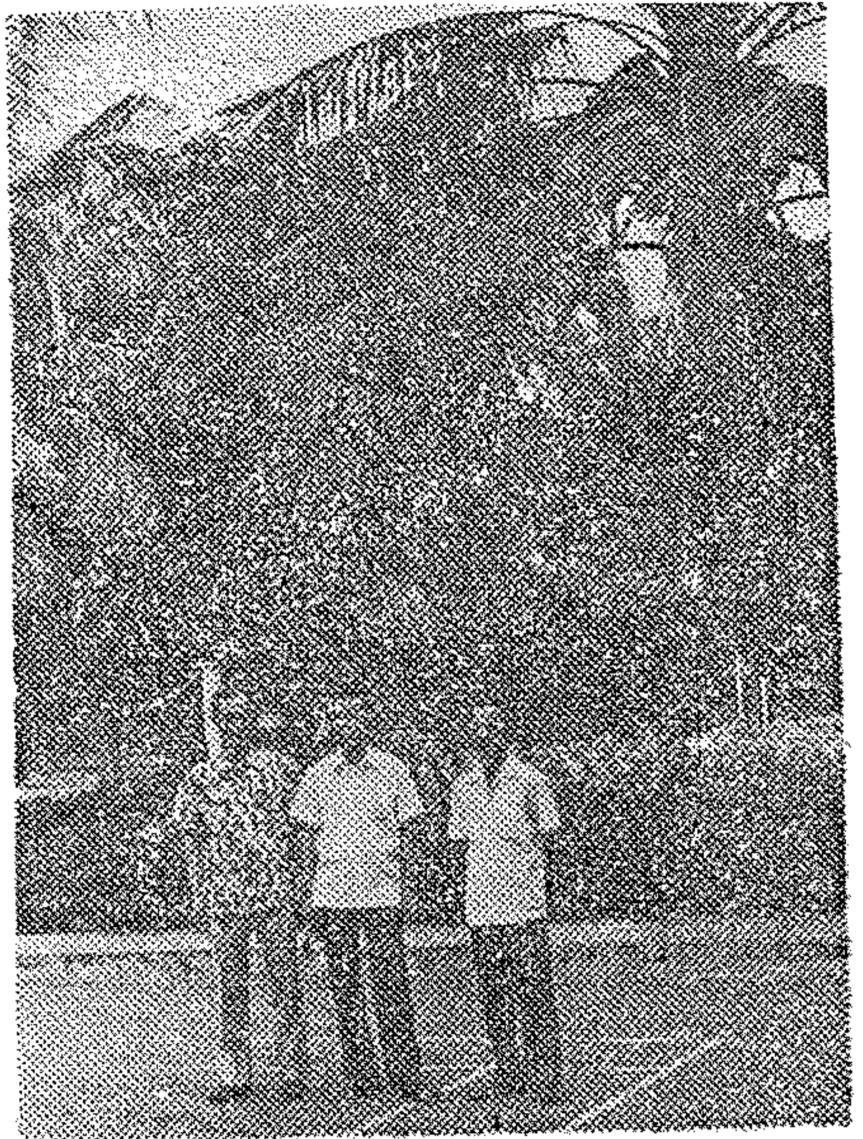
마레이시아를 보고

다음에 간곳이 마레이시아의 首都 쿠알라룸프르다. 飛行機에서 내려다보니 山에 人工造林한 곳이 많기도 하다. 着陸後 안 것이지만 바로 이것이 고무나무밭인 것이다. 7년생이상이면 24시간 生고무汁이 떨어지는 고무나무숲인 것이다. 空港에서 市内로 가는 途中에 주석(T I N)鑛山이 있었는데 露天에서 採掘한다. 우리는 鑛山하면 斜坑이나 垂坑의 땅굴을 연상하는데 땅굴없이 그냥 山바닥을 파면 T I N鑛石이 나온단다. 自然의 惠澤을 많이 받는 나라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內容을 보면 요지음 「마레이시아」는 마레인의 「마레이시아」로 만들기 위한 政策이 推進中 이란다. 그중 큰 理由는 이 나라에 40%

의 마레이인이 4%정도의 國富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7個年 計劃으로 14%정도 까지 提高시키는 것이 目的이란다. 그 遂行方法中 重要한것이 마레語만을 公用語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이곳 國立大學에 中國人子弟가 進學을 못하고 英國 켈부리지등으로 留學을 가게 되며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서 國語(마레語)點數가 떨어져 成績이 下位로 간다는 것이다. 議會의 會議錄을 보니까 마레語는 마레語대로 英語는 英語대로 速記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었다. 이곳에는 回敎가 國敎라는데 中國人은 대개가 回敎信者가 아닌것 같았다. 여기는 權力을 마레이인이 經濟는 中國人이 가지고 그 相互作用으로 社會가 끌려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번의 마레이지아」의 親中共政策은 큰 失手라고 外交街에서는 評하고 있었다. 그 理由는 피는 진한것인데 中共의 입김과 國內中國人의 關係를 어떻게 處理하겠느냐는 것이다. 마레이인은 誠實하고 溫順해 보였다. 天惠의 환경탓일까. 「쿠아라룸포르」에서는 大寺院이나 觀光地에 가도 入場料를 내본적이 없다. 「마레이지아」가 資源이 豊富하여 잘 산다는 것은 알려진 事實이지만 貧富의 差는 너무나 큰것으로 보였다. 한마디 添加할 것은 우리가 묵었던 Federal호텔이 一流에 가까운 곳인데 韓國人에 割引해주고 韓國人形, 韓國술 등이 陳列돼있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집의 들깨머느리가 韓國人이라는 것이었다. 어디고 가보면 同族이 있는 곳은 좀 달라 얘기나 接近이 훨씬쉽다는 것을 느꼈다.

싱가폴에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갔다. 불것없는 조



<방콕로스가든에서>

그만 섬이 獨立國家란다. 그런데 人口 약 200萬이라는데 물을 비롯한 모든것을 輸入해다가 먹는나라, 中國땅을 떠나서 세워진 中國人의 나라, 이 나라가 마레이지아에서 獨立해가지고 훨씬 여러가지로 좋아졌다는 것이다. 세계의 은행이 거의 와 있고 세계의 배가 드나든다는 곳 李光耀 首相이 政治를 잘한다는 그것 自體가 남의 關心事 내지 구경거리가 되는 곳이란다. 將次 香港같은 곳이 될 候補地이나 하나 문제점이 있다. 이곳 中國人들이 대개 下級勞動者로 들어와서 돈 번 사람이라 일진 일리를 다룬다는 것이다. 하니까 外來人에게 서운한 기분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現在 무역금융의 증세지로 착실하게 成長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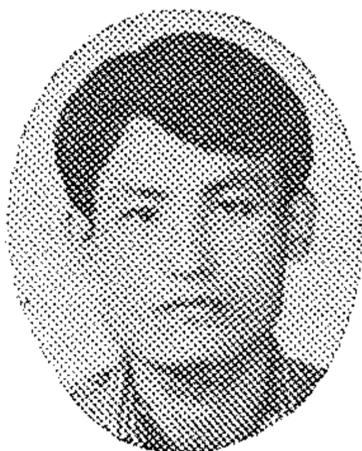
서울과 類似한 台北

그 다음 간곳이 台灣의 台北 이곳은 서울과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보다 작고 한

산한 것이 다르지 그 풍기는 공기는 서울과 가장 類似하다. 이곳의 故宮博物館의 陳列品을 보고 古代中國 商나라以來의 찬란했던 文化의 遺蹟을 볼 수 있으며 農村이 잘 사는곳 따라서 먹을것 등 農産物이 싸고 흔하고 質이 좋은便인 부러운곳이라는 것 蔣總統의 過去 現在, 反共 政治組織 다 아는것으로 치고 中國女人의 價値觀이라 할까, 意識의 一面을 紹介하려 한다 우리 一行이 「원저호텔」에 旅裝을 풀었는데 마침 丁議長께서 訪台中이시라 大使館이나 僑胞의 案内를 받을수가 없는데 그 호텔 一層의 土産物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30정도의 女人이 自己 상점의 接원을 내보내서 案内를 自請해서 해주었다. 첫째 韓國人이라는데에서 好感이 간다고 福建省이 故鄉이라는 이 女人이 얘기했으나 몇일 묵으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代價 없이 好意로 베푼것은 우리 一行이 저녁에 술에 취해서 전들거리는데 사람이 없고 저녁마다 投宿하고 있는 日人들 100%가 女子 하나씩 불러들이는데 그러지 않은點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處身하는것

을 보아 相對한다는 式이였고 어떤 難處한 立場을 當해도 놀래지않고 조용히 賢明하게 處理하는데에서 中國文化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中國이 元·淸等 征服者를 同化시킬 수 있었던 힘을 바로 저런 女人들, 의젓하고 침착하면서 갈 길을 똑바로 가는 中國女人에게서 나온것이 아닌가 느끼면서 「월벽」作 모란꽃의 主人公 이스라엘인 다비드의 妻가된 中國女人이 연상됐다. 選民思想에 젖은 이스라엘人 家庭에 中國人 며느리가 들어가서 中國化시킨다는 줄거리다. 東南亞一帶에서 中國人의 同化를 막은것도 中國女人들이 東南亞로 進出하면서부터 現地女人과의 雜婚이 줄어들고 中國化를 촉진했다는 歷史的 史實을 想起할 價値가 있다. 台灣에 심어진 中國文化를 대충 감상하면서 日本을 거쳐 약 20日의 旅行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點이 많지만 한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도 좀 안달하면서 살려고 버둥거리지만 말고 주어진 與件 속에서 할일하고 즐기면서 사는 슬기를 배워야 짚다는 것이다.

○ 스포츠뉴스 ○



往年の 민완기자였던 河良培氏가 軍服 務를 마치고 復職 本協會記者로 다시 일하게 됨으로써 本紙의 一線取材와 編輯에 活力을 불어 넣게 되었다. 氏의 탁월한 能力과 熱意는 本紙의 밝은 내일을 約束케 한다. 全會員과 더불어 期待를 모아본다.



가나안 農軍學校를 다녀와서

柳 承 寬

1. 入校.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한줄기 水平線을 이루고 어느 바닷가 이름 모를 바위에 산산히 부서지는 하얀 파도위로 솟구쳐 飛翔하는 갈매기가 每日의 生活에 지친 「셀러리맨」을 向해 손짓하며 앞서가는 盛夏의 季節.

해마다 7月이 되면 한차례씩 찾아드는 이 季節의 誘惑(?)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파도도 水平線도 돛단배도 없는 京畿道 東部面 가나안行. 1인乘을 敢行한데에는 오래 前부터 마음 먹었던 나 나름대로의 확고한 目的意識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서울과 京畿道の 갈림길에서 南쪽으로 約 10분간을 더 달리면 都市의 騒音이 遮斷된 한적한 시골길이 전개된다.

이길을 혼자 걸으며 나는 어릴 적에 들은 듯한 산새들의 지저귐과 내 故郷 어느 山모퉁이에서 인가 본듯한 하얗고 노란 산꽃들을 만날 수 있어 이미 흘러간 어린時節이 아름답게 꽃피어 올라 열흘간의 살림살이를 등에 진 이 自由人으로 하여금 이대로 이길을 따라 끝없이 헤매는 「보헤미안」이 되어보고 싶은 衝動을 일으키게

하였다.

空想속에 自由奔忙한 「보헤미안」이 한가닥 아카시아 숲속 외길을 따라 한참이나 걸었을때에 忽然 눈앞에 전개되는 懸板이 “가나안 農軍學校—福民運動會” 이제 「보헤미아」의 말(馬)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佛門에 入道하는 女僧과도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가나안」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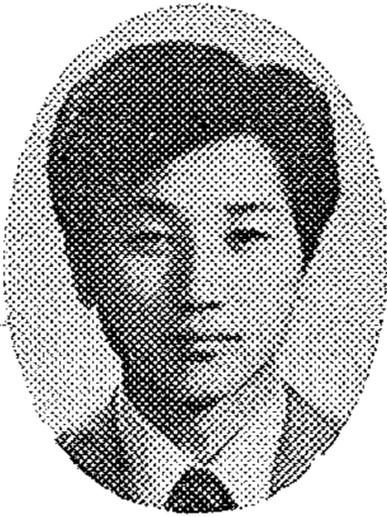
2. 첫과 끝이 흐르는.

그날 午後.

규정된 대로 諸般 入校手續을 마치고 全國各지에서 모여든 뜻있는 젊은이들과 낯설은 人事를 나누고

저녁 늦게서야 內務班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날밤. 第129期 全國 大學生 가나안農軍學校 第1段階 教育者 49名(男子31 女子18)의 入校式에 앞서 앞으로 實施될 열흘간의 教育에 대해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전에 農軍學校의 教育性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예비상식을 갖고 왔으나, 그중 2名の 學生이 手術後 療養차 이 農場에 와 머루랑 다래랑 마음껏 따먹으며 文字 그대로의 첫과 끝이 흐르는 가나안 생활을 하려고 잘못 왔기 때문에 魂飛魄





<金容基校長先生님과 함께>

散하여 그날밤 그들은 새로운 휴양지를 찾아 길을 떠났고, 나머지 47名(男31, 女1)은 50坪 남짓한 敎育館에 入室하여 敎授團을 마주한채 오른손을 높이들고 힘찬 入校宣誓를 외치게 되었다.

밤 10時 就寢——

새벽 4時 30分.

예배당의 새벽종소리가 1萬坪 農場의 우거진 숲사이를 헤치고 은은히 餘韻되어 사라질 무렵 난데없이 亂打되는 空襲警報 아닌 起床警報에 꿈속의 가나안동산을 거닐던 아담의 후예들은 현실속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는 軍隊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出身道가 忠淸道인지 慶尙道인지가 한눈에 식별될 수 있는 狀況이 전개

되는데는 신기한 것은 번번히 짝없는 고무신을 신고서 마루밧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이거나 뒤늦게 바지춤을 움켜쥐고 험레벌떡 延着함으로써 이미 練兵場에 대기된 부지런한 사람들로 부터 激勵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으레히 내 故鄉 忠淸道 兩班(?) 들 이라는 점이였다.

5分內 集合完了.

“開拓! 1974年 7月 ×日 가나안農軍學校 제1단계 敎育者 總47名中 事故 無. 現在員 47名 敎育準備 끝!”

새벽하늘을 짙게 누른 명예부장의 人員報告이다. 끝이어 4절에 이르는 愛國歌齊唱이 있게 되는데 사실 愛國歌 이야기 가 낮으니 말이지 우리 國民들중에 愛國歌를 4절까지 완전하게 부를 수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部分은 가히 동쪽바다와 白頭山 영봉에 까지 울려 퍼질 정도의 우렁찬 소리이다. 그러나“남산위에 저 소나무”를 지나 공활한 가을하늘을 거쳐서 “이 氣象과 이맘으로……”의 句節에 다다르면 마치 약이 다된 「라디오」에서 힘없이 흘러 나오는 노래인양 듣기에도 애처로운 소리가 정말 이런 氣象과 이런 마음으로 忠誠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때 大韓國民으로서의 자신이 부끄러워 짐은 비단 나만의 呵責일까. 이어서 3千리를 호령할 수 있을만한 함성지르기가 끝나면 驅步로 福民敎育館에 入室하여 새벽 강의가 1시간 남짓 계속된다. 이 시간은 주로 宗教와 信仰에 대한 講座인데, 이 宇宙萬物을 누가 만들었으며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萬物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萬物을 마음대로 使用하고 거느리

고 처리할 수 있는 特權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善과 惡의 구분은 왜 두었으며 善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惡의 결과는 어떻게 되며 人生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와서 무엇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宗教에 대하여서 깊이 思考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129期 學生의 대부분은 基督教 信者였으나, 그중 佛敎信者와 非宗教人들도 여러명 있어서 서로가 宗教觀에 대한 價値있는 對話를 매일 새벽 나눌 수 있었다.

새벽 講義를 마치면 곧이어 이 學校의 傳統있는 各 코스(A:2km B:4km C:10km)別 새벽 驅步가 시작된다. 이곳에서의 一舉一動은 모두가 驅步속에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새벽 이슬이 온 大地를 촉촉히 적시고 아직 아무도 밟지않은 이른 새벽길을 男女 全 生徒와 敎授가 “精神! 開拓!”을 외치면서 힘차게 달릴때면 모두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사람이 되어 하루의 日課를 설계할 때면 상쾌하고 맑은 精神속에는 알알이 들어박힌 포도알같은 그날의 日課가 건전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 값진 땀방울을 식히면서 農軍체조를 마치고 生徒全員은 각자가 분담하여 아침 청소를 實施한다.

이제 바야흐로 大望(?)의 아침식사. 日用할 양식에 대한 感謝讚頌과 ‘먹기위해 먹지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라는 口號가 끝나면 비록 飯疏食 일지라도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왕성한 食慾에 胃大한 친구들의 바닥 굽는 소리로 토담집 식당안은 不協和音을 이룬다. 또한 이 식사시

간 중에 特記할 것은 食卓敎育인데 食後 5分내지 20餘分에 걸쳐서 食卓禮節이라든가, 食生活改善, 食事와 健康 등 一生에 있어 실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食事に 대해 再認識을 하게 하는 貴한 知識과 禮法을 배울수 있었다.

食事が 끝나면 이번 1段階 敎育 自體가 精神敎育에 치중하는 것이므로 다방면에 걸쳐 12시간의 全日敎育이 強行軍 된다. 이 講義를 맡은 敎授團 全員(11名)은 모두 한 家族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校長 金容基先生님을 비롯해 敎授 한분 한분이 그 學識과 人格面에서 배울 만한 점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었다. 여기에서 열흘간 실제로 받았던 敎育內容을 言及하기에는 이 사람의 짧은 知識과 우둔한 筆致로써는 不可能하므로 略하기로 한다. 다만 많은 講義中에서도 金容基 校長선생님의 宗教, 政治, 經濟 等 各 分野에 걸친 〈人間社會生活의 3大基本要領〉은 나와 家庭 그리고 國家와 人類 나아가서는 造物主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확고한 生活哲學을 일깨워주는 귀한 講義였으며, 김범일 敎授의 〈바람직한 人生觀〉 〈술과 담배〉에 관한 講義 김기석 敎授의 〈精神革命을 위한 敎育〉 그리고 새벽과 밤마다 熱과 誠을 다해주신 김종일 校牧님의 〈宗教와 信仰〉講座 등은 오늘날 뚜렷한 自己主觀과 건전한 生活理念도 定立하지 못한채 歪曲된 青年文化나 謳歌하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에게 숙연히 自我反省을 하게 하는 눈물어린 講義였다. 또한 이화평 敎授의 〈眞正한 意味의 女權運動〉, 김찬란 敎授의 〈家庭倫理〉에 대한 講義는, 마치 高峯峻嶺에 높이 솟아 있는 바위를 굳건히 지탱시키는 작고 귀한 고임들의 역할이 女性의 職分에 比喩된다면

그같이 重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女性으로서의 犧牲的 精神姿勢와 內面的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熱講이었다. 그 외에도 <고구마 栽培 및 貯藏法> <딸기栽培法> 및 農事知識에 관한 김평일教授의 講義는 주어진 人生을 좀더 건전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려는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感動과 깨달음을 준 名講義였었다.

이러한 10시간이 넘는 強行軍이 끝나고 最終時間이자 最初의 自由時間을 갖는 취침 前의 內務班에서는 「우리는 이때 이렇게 살자」, 「온 겨레가 要求하는 人物」等 60여項에 達하는 「生活憲章」을 暗記하기에 모두가 지칠줄을 모른다.

“① 한마디의 말이 約束어음으로 대용되는 人物 ② 意志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음이 요동치 않는 人物 ③ 무슨 일이든지 一定한 研究와 意見을 가지고 앞으로 發展하여 나가는 人物 ④ 작은 일에도 큰 事件과 같이 忠誠스럽게 實行하는 人物 ⑤ 自己 個人을 위한 野心이 아니고 人類와 社會와 남을 위하여 큰 抱負로써 奉仕하려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人物 ⑥ 勇氣와 果斷性에 積極성을 가진 人物 ⑦ 좋은 機會를 놓치지 말고 機會를 민첩하게 붙들어서 自己가 할 일을 유감없이 행하는 人物 ⑧ 많은 사람 가운데 가서라도 自己의 가진 바 意志와 自己의 올바른 獨特性을 잃지 않고 뚜렷이 들어낼 수 있는 人物 ⑨ 아무리 賤待받는 職業이나 勞動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低劣感을 갖지 말고 떳떳이 일할 수 있는 人物 ⑩ 일을 하다가 失敗를 거듭 거듭하여도 不平과 落望을 하지 말고 씩씩하고 기쁜 마음으로 成功할 수 있는 人物 ⑪ 敬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人物 ⑫ 겸손하고 지혜로운 人物 ⑬ 모든 일을

盤石같은 信仰生活로써 이끌어 나아가는 人物이 되자” (註: 「온 겨레가 要求하는 人物」)고 몇번이고 다짐하면서 우리들은 또 한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서 아름다운 꿈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다.

3. 가나안 農軍學校

今年 11月이면 開校 20週年을 맞는 가나안 農軍學校는 일찌기 1930年 봉안理想村에서 부터 그 유래를 두고있다.

勤勞, 奉仕, 犧牲을 教育理念으로 하여 그간 5萬 6千餘名에 達하는 軍人, 學生, 職場人, 農村指導者, 宗敎人들이 敎育을 거처나갔고 특히 이 學校의 校長 金容基長老는 1966年 社會公益部門의 막사이사이 賞을 受賞하였으며 지금도 福民記念館에 진열된 수백개에 達하는 感謝狀과 感謝牌 또한 過去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치고 피로써 새생활을 決意한 수백장에 이르는 血書文, 惡으로 點綴된 過去의 생활에 대한 反省과 悔改의 눈물과 함께 바쳐진 凶器 無爲徒食의 거지생활을 박차고 自立의 터전을 이룩하고 마침내 工場을 세워 그 첫 生產品으로 바쳐진 食器한벌, 이와 같은 것은 20年前 여기 不毛의 荒山村을 開拓하여 오늘의 「가나안」을 이룩한 산役 軍들의 숨은 勞苦와 이 學校의 헌신적인 敎育成果를 조용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農軍學校의 敎育이 一般 學校敎育과 다른점은 “듣기를 원하기보다 보기를 원하는 時代에 사는 스승들은 知識이나 技術만의 스승이 되지 말고 生活로 보여주는 스승이 되자”라는 生法憲章의 理念과 같이 한낱 理論과 口號에만 그치는 形式的 敎育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앞장서 실천하며 생활하는 산 敎育인 것이다.

그런데 韓國의 가나안農軍學校는 일찌기 印度에 있어서의 「부우단」運動에 기초한 農民道場(아—슈람)과 덴막의 「그룬트비히」「크린스텐콜」을 중심으로한 國民高等學校와 그 教育理念과 教育方針 내지 教育目標에 있어 거의 類似하다. 教育과정은 1단계(精神教育) 2단계(技術教育) 3단계(指導能力教育)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前述한바 印度와 덴막의 實踐事例에 견주어 그 教育정책적 공통점을 열거한다면,

첫째 信仰을 바탕으로한 순수한 靈魂救援運動인 點

둘째 印度의 三重革命理論(人間意識의 변화, 人間生活의 변화, 人間 社會構造의 변화)을 강조하는 點

셋째 하나의 家庭이 바탕이 된 즉 人格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共同體를 形成한 點

네째 教育科目에 있어서 勝利와 敗北의 역사적인 「어프로취」가 강조 되는 點

다섯째 物質的인 損失을 精神的으로 복구하여 不幸을 克服하는 點

여섯째 機械的이고 形式的인 教育의 撤廢

일곱째 自給自足の 原則 等の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나안農軍學校의 教育학적 특징은 知識과 人格, 삶이 一元化와 全意識的인 統合教育을 통하여 人間의 意識과 下意識에 있어서 이제까지 16年間に 걸친 一般教育을 통해서 부단히 연마된 意識의 分野보다는 人間의 下意識(無意識)속에서 빛어지는 온갖 「야누스」적 생활행동을 뒤 흔들어 變革시키자는데 그 教育학적 특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人間 意識의 전면에 나타난 것치고 天使의 소리가 아닌 것이 없듯이, 거의 無意識 속에서 되풀이 되는 우리의 日

常 生活方式의 새로운 변화로 말미암아 내 自身이 잘 되고 내 家庭이 잘 되고 나아가서는 이 國家와 온 人類가 잘되기 까지 우리는 부단한 精神開發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農軍學校의 教育이 人間生活의 심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총전의 生活을 反省함으로써 건전한 國民精神을 培養하고 愛國愛族精神을 涵養시키며, 우리가 올바로 배운것을 그대로 實踐하는데에 그 教育目標를 두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教育은 어떠한 다른 教育에 先行되어야 할 참 人間教育임을 여러번 認識하게 되었다.

4. 鐘소리는 가슴속 깊이

열흘간의 고된 生活을 忍耐로서 克服하면서 우리 47名の 生徒들은 크고 귀한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마지막 날 修了式場에서 開拓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修了 宣誓를 외칠 때에는 모두가 가슴속 깊이서 우러나오는 感激의 눈물을 흘리었다.

7月 ×日 正午 ·

太陽이 쏟아지는 練兵場에 땀으로 얼룩진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줄지어선 우리 47名の 生徒들은 社會에 나가서도 「가나안」精神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職分을 성실히 履行할 것을 젊음의 눈동자 로써 굳게 다짐하면서 情들었던 教授님들과 惜別의 아쉬움 속에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社會라는 험난한 航路, 거칠은 荒蕪地를 向해 새뚫을 울리며 힘찬 첫발을 내딛는 47人的 「파이어니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祝福의 땅 「가나안」을 정말 「안나가」고 싶어 하면서도 무엇인가 希望에 부푼 새생활의 設計에 부듯한 가슴을 안고 各者의 荒蕪地를 向해 東西南北으로 묵묵히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國會 速記課勤務)

先後輩사이의 放談

先 輩

— 參 席 者 —

後 輩

金永善(理事長)

梁源龍(前宣傳部長)

金永春(前理事)

李龍洙(華東產業代表前研究委員長)

朴大成(國會速記士)

趙永昌(")

李賢熙(")

司 會：楊澈在(宣傳部長)

記 錄：河良培(協會記者)

日 時：1974年 7月 16日 12時

場 所：國會速記士養成所



<左로부터 朴大成 趙永昌 李賢熙 河良培 楊澈在
金永善 李龍洙 梁源龍 金永春 諸氏>

○ 司 會：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배 네분 후배 세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主題는 「先後輩사이
의 放談」으로서 人間關係를 중심해가지고

1. 현재 서로의 生活近況
2. 각자 處해있는 위치에서 바라는 선 후배의 像
3. 좀더 對話를 넓혀서 거리감을 좁히는 방안

이런 순서로 진행해서 보다 선후배 관계를 敦篤히 하는 요소를 集約하고자 합니다.

— 生活近況 —

○ 梁源龍 : 제가 速記界에 投身한지 22년이 지났습니다. 20살에 速記士가 되어가지고 22년을 속기로서 생활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物價도 오르고, 도저히 家計을 꾸려 나가기가 힘들고, 어떻게 했으면 보다 나은 收入源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딱 차 있지만 어디까지나 速記로써 내 青春을 바쳐왔던 速記界에 영원히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速記는 버리지 않을 心算입니다.

속기를 19살때 速記養成所에서 배웠는데 그 때만해도 속기하는 사람이 全國에 얼마 없었어요. 그때 속기를 배웠을 때에는 野望에 불타 가지고 내 人生은 垣垣大路에 나설 것이다 自負했는데 이제는 속기를 한다는 「프라이드」가 약간은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生活手段이다 내 天職이다 하는 스스로의 긍지는 항상 가지고 있죠.

○ 司 會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梁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근황이라기 보다도 선배들 전체를 代弁한 말씀이라해도 좋겠지요.

○ 李龍洙 :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主題를 대강 물어 보아서 알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느낀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에는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발전적으로 해 보았으면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10餘年이 지나갔어요.

요즘 근황이라는 것은 막상 事業한다고 뛰어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안에 10餘年 있으면서 좋은 與件 속에서 시간을 유효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지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英語라든지 日語라든지 하나는 「마스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어영부영 보내고 말았어요. 이러한 愚를 다시는 犯하지 않겠다고 하루에도 두번 세번 생각합니다.

○ 司 會 : 다음은 후배라면 우습습니다마는 朴大成씨가 요새 근황을 얘기해주세요.

○ 朴大成 : 제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후배들이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나는 제 나름대로 外國語工夫를 하는 등 스스로 뜻있는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夜間大學을 나가면서 보람을 찾고 있는데 저자신은 다른 方面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 李賢熙 : 제 경우에는 國會에 들어온지 4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는 학교를 다녔고 또 졸업했지만 요즘은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생활이에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大學생활하는 것 자체로 만족했어요. 졸업을 하고나서는 현실과 꿈과 타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渦中에 있는데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司 會 : 선후배간에 느끼시는 것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군요. 그것은 우리 實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이런 此際에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선배님을 여기 모신다면 약간의 萎縮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못 모시고 協會 理事長이시면서 速記第2係長님인 金선배님을 모셨습니다.

○ 金永善 : 나도 처음에는 夜間大學 다니느라고 다른것은 마음에 안 두었고 그 다음에는 生活基盤을 잡으려고 뛰어 다녔는데 나 自身은 단지 기술상의 선배지 그 방면에 대해서 후배에게 도움을 준 것도 별로 없고 다만 몇년 더 살았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내 경험을 거짓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은 했다고 自負하는데 제1문제는 각자가 速記界에 종사하면서 선배나 후배나 이 職을 저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내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人間의 목적은 결국 죽는 것이고 과정밖에 없는데 그 사는 과정이 중요한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과정을 충실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아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司 會 : 어느 면에서는 生活哲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살찌우는데에서 행복을 찾자는 말씀이었읍니다.

생활근황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대개 귀착이 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나쁘다. 하지만 피부에 부딪치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不斷히 노력한다. 또한 살아가는 과정에 충실할 것이 중요

하다.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 다음은 바람직한 선후배의 像 특히 후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 선후배의 像 —

○ 金永春 : 어느 직장에나 어느 단체나 가보면 선배나 후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聯關關係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직장의 분위기는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선후배관계가 나타나는 곳이 군대인데 우리 速記界의 선후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주 엄격한 선후배관계는 아니지만 선후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과정에서 본다면 몇년이 지나면 선후배 의식이 희박해져서 무시되어 질 때가 있어요.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대우를 받고 후배는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의 대우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장안의 분위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선배는 후배에게 指導 鞭撻을 아끼지 않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배의 입장은 선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는 선배에게 선배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다 하는 의식으로 생활하면 원만한 共同生活이 되리라고 봅니다.

○ 梁源龍 : 어느 직장이든지 선후배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근본요소는 선후배간의 人間關係를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日本에 庭野利雄라고 하는 지금 69살로 최고 年老한 현역 속기사로서 지난번 글쓴것을 보았는데

후배가 자기를 팔세한다고 써있어요. “자기는 一生을 속기사로서 바쳐왔는데 늙어서도 속기는 하겠다. 「스피드」는 없으니까 후배들이 副業이라도 하면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整理員으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實感나는 글이라고 느꼈어요.

현재 우리 내부적인 선후배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對話가 잘 이루어 지지않는 상태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을 세가지로 보면 첫째는 制度的인 면입니다. 순환작용이라든가 新陳代謝가 잘되면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려고 하고 후배도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막혀 있어요. 둘째는 업무의 同質性으로 인해서 선배가 후배에게 특별히 가르쳐 줄것이 없고 해서 선후배를 따질 수가 없고 단지 主務다 하는 것은 漢文 틀린것을 고치고 원고를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세번째는 역시 世代間에서 오는 隔差입니다. 심한 경우 20餘年이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思考方式이 틀립니다. 우리는 동네 어른을 보면 무릎을 꾸부리고 인사하는 것을 배워왔고, 요즘 젊은이들은 가볍게 인사해도 失禮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데에서, 선후배관계가 모호해 지는 가운데에서,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調和시키고 대화를 이룩하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 司 會 : 두분 金선배님과 梁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선배들에게서 느꼈던 점을 後輩들에게서 말씀해 보실까요?

○ 趙永昌 : 저 자신은 평소에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선배님들의 가르치심으로 다른 잘못을 안하게 될것을 바래드. 그리고 아까 理事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간을 너무 닳 쓰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 金永春 : 우리들의 인간성이나 성격이 나쁘다면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선후배간에 인사를 안하고 지나간다는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직장안에서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삼가는 것이……

○ 趙永昌 : 의식적으로 인사를 안하려는 후배는 하나도 없을거예요. 모르고 지나친다는가 갑자기 마주치면 인사하기에 어색할 때가 있어요.

○ 梁源龍 : 주변의 얘기인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습니다. 약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담배 하나 피웠습니다” 한마디 하고 된다면 좋겠고 인사를 하려고 해도 어색해서 안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대화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가끔 후배들이 술을 한잔 사세요. 또 선배도 한잔 사가면서 피차간에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 좋을거예요. (웃음)

○ 金永善 : 우리네 習慣은 나이 대접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것같지 않습니다. 대화도 꼭 술을 사고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들 社會가 다른데 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좋은 편이에요.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 司 會 : 다음은 선배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을 얘기해 보세요.

○ 朴大成 : 저는 69년에 들어 왔는데요

제대를 하고 6年째에 접어들어도 동료직원이라든가 직장의 上司다하는 생각보다는 속기로 맺은 선배다 선생님이다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문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경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경우라도 뒤에서나 술좌석에서 얘기하신다면 逆效果가 날것 같아요.

○ 李龍洙 : 전부 一理가 있는 말씀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선배들로서도 自覺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직장 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다 보면 서로 친하면서도 친한 것같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밖에 나와서 느낀것은 그 이상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枝葉末端밖에 안됩니다.

내 조카중에 대학 졸업하고 ROTC장교로 갔다운 사람이 있는데 맞대놓고 술먹고 담배피우고 합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어렵지 않느냐 물어보면 오히려 이러는것이 분위기가 자유롭고 더 좋지 않습니까 反問해요, 이것은 韓國的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 梁源龍 : 아니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웃음)

○ 司 會 : 國會內에는 女性速記士도 많은데 女性間的 선후배관계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李賢熙 : 여자들의 선후배관계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제 경우는 처음에 들어와서 태도라든가 「매너」에 대해서 忠告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것이 제가 一生을 살아가는데 지침

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선배들이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얘기해 주어서 가르침을 주는 기회를 가끔 가졌으면 좋겠어요.

○ 司 會 : 선후배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 갔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사이를 좁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 改善方案 —

○ 梁源龍 : 제가 옛날에 新聞社에서 윌챙이 記者노릇을 할때 어깨띠고 돌아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방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꾸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하니까 지칠것 같아요. 그래서 各個戰法을 썼지요. 선배 한사람 붙들고 오늘 술한잔 합시다 해서 謝過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나를 밋게보던 분이 오늘은 인사성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더군요. 인간관계에 異常이 있다고 생각하면 私的인 술좌석을 만들어서 툭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司 會 : 선배님께서 후배들과 술잔을 놓고 마음 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의 경우는 20살때 國會 速記士로 들어왔었는데 당시 나이도 어리고 술, 담배도 안했을 시절이라 선배들이 어찌나 높아 보이던지 어떻게 할줄을 몰랐어요. 마침 現 課長님이 조용히 불러다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마음이 트이지 않은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忠告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 李龍洙 : 처음 들어와서 높아보이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대화의 문

을 선배가 열어 줄 책임이 있어요. 후배들을 불러다 善心을 한번 쓰면서 선후배의 거리감을 좁히는 이러한 기회를 선배가 主導를 해서 열어라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金永春 :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대화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速記協會의 설립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이고 總會가 1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총회 끝나면 食券 하나씩 주고 맙니다. 이런것을 止揚하고 전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파자나 콜라같은 것을 사다 놓고 「리셉션」이라 할까 茶菓會를 열어서 대화의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 趙永昌 : 그 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하는 중에도 서로 스스럼없이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가져야 겠지요.

○ 司 會 : 사실 선후배간에 모임의 기회는 많았습니다. 體育大會도 있었고 老壯對少壯 축구시합도 가져서 회원사이에 친목 도모와 선후배의 거리감을 좁히려고 노력은 벌써부터 해왔습니다. 참고

로 제가 國會速記士란 「양케이트」를 내는 중에 보니 많은 速記人들이 서로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6%에 불과하여 단결이 잘 된다고 알려진 소문과는 좀 거리가 멀기에 의아스럽게 생각했으나, 速記人이나 親知의 慶吊事에는 68%가 다른일을 제쳐놓고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래 이것이 速記人들끼리 서로 돕고 협조한다는 간접 측정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를 위요한 制度나 경제적인 주변여건의 불만족 때문에 速記人間의 關係가 가리워져 있던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先後輩와의 對話에 幅을 넓히는 데 協會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 理事長님도 계시니까 배려를 해 주실줄 믿습니다만 실은 오늘 이렇게 선후배간에 대화를 터놓고 보니 이미 對話의 幅도 넓어 있었고, 서로의 사이도 좁아져 있었다는 감이 들어서 본좌담이 굳어지기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가려는 의도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速記席

○ 맑은 하늘이 드높았던 지난 4月 27日 여의도 푸른잔디 위에서는 類例없는 異色 축구시합이 벌어져 異彩를 띠었는데 이름하여 速記課內 既婚者 對 未婚者 축구시합.

○ 이날 前半 25分만에 한점을 先取했던 미혼팀에 始終 苦戰을 면치 못하던 기혼팀은 後半 20分에 PK를 성공시켜 가까스로 「타이」를 이루었다.

○ 「벤취」석 응원단들은 대부분이 課內의 Miss들 이들은 競技가 시작되자 의외로 未婚아닌 既婚팀에게 열띤 함성을 보내 同質感(?) 속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게임」에 임했던 미혼선수들에게 가벼운 失望을 안겨주다가.....

○ 막상 미혼팀에서 Y선수가 깨끗한 슛으로 先取點을 올리자 Miss들이 축구공만큼이나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선배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라고 慨歎의 말씀

<柳>

○ 수 필 ○
自 畫 像

盧 熙 南

「社會에서 處身이 정말 어렵구나！」
하고 생각하기를 몇번인가!

다행히도 그 때마다 先輩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同僚들의 友情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다.

내가 養成所를 수료하고 速記課에 들어 온지도 어언 4년이 되었다.

처음 2年은 正式發令받은 同僚들 틈에 期限附라는 명예롭지 못한 「닉네임」을 붙이고 뛰어야 했으며 또 보통 入試生에게나 붙여지는 三修라는 단어가 과편처럼 나에게 붙어다니게 되어 그에 따라 깊어진 挫折感때문에 모든 일이 두려워 졌고 할려고 하는 意慾조차 생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나만이 느껴야 했던 期限이라는 말의 洪水속에서 2年뒤 늦게야 나는 正式이란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것이 비록 하찮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당시 나의 기쁨은 컸다.

그후 2年동안, 나는 꽤나 바빴던 것 같다.

登山이다 卓球다 蹴球다하는 餘暇善用을 위한 試合에는 꼭꼭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겼다고 한잔, 졌다고 두잔 하는 落蘊국물에 정신을 빼앗기곤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머리속은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시덤불처럼 얽히고 설킨 한참 복잡해져 있고 할줄도 모르면서 멋진 「슬라이딩」을 해보

겠다고 뽐내다가 두손은 멍들어 있으며, 키가 큰 탕으로 잘넘어져서인지 다리는 傷處자욱만 남게 되었고, 발톱은 또다시 빠지고 있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젊다는 한가지 特權으로 뛰고 당기고 부딪치고 넘어지고 하여 얻어진 명예로운 傷處라고 自慰해야 할까?

이 世上에서 젊음처럼 高貴한 아름다움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또래의 모든 젊은이들은 싱싱한 젊음을 키우고 오래도록 保存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萬全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도 어리다는 말과 젊다는 말을 混用하여 취급당할 때 불같이 怒號한다.

나는 가끔 다른 分野에서 從事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은 주어진 일에 자기의 創造性を 發揮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젊은 「엘리트」로서의 待遇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과 나는 주어진 與件이 다르고 처해있는 位置가 다르고 또 專攻이 다르며 그리고 個性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기 職場의 내일을 걸머져야 한다는 共通的인 使命感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며 하고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먼 훗날 不惑의 나이라고 일컫는 40이 되었을 때의 나를 머리속에 그려본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 生涯中 가장 精力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位置가 어떻게 되었든 자라나는 2世의 將來와 나자신의 내일의 生活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生活

사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발돋움으로 내일 世上의 終末이 오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태도로 삶에 임할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人間은 무한한 欲望의 奴隸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欲望에 服從하는 忠誠스러운 奴隸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철저하게 服從하다 보면 언젠가는 欲望이라는 主人으로 부터 信任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은 쉬울 것이 아닐까?

언젠가 漢文時間에 배운 修人事 待天命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 至嚴하신 先生님의 말씀은 내 머리 속에서 한시도 떠날 때가 없었다. 쉬운 말같이 들렸던 그말이 行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갈수록 절실하게 느껴만 진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도 멍하니 앉아 있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니 자연 주위를 소홀히 생각하는 習慣이 붙었다.

사람은 生活하는데 주위환경의 支配를 받고 또한 거기에 順應하고 適應이 빨라야 하는데 나의 마음은 虛空에 떠있어 항상 늦게야 눈을 돌리곤 하게 된다. 늦었지만 돌아보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人間的으로 誠實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나는 배운것이 많았다.

다만 한가지 단체행동에 너무도 消極的이어서 不滿이었다고나 할까?

생각하면 무던히도 바빴던 2年이었다.

좋았던 일,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 또 즐겁던 때도 있고, 어렵던 때도 많았던 것 같다.

그때마다 여러사람들의 指導와 鞭撻덕분으로 쓰러지지 않고 꾀꿉이 내자리를

지키며 살아 왔다.

잘한 것보다는 실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으나 오직 한가지 自負하고 싶은 것은 速記人으로서 速記人을 위하고 同僚를 위하는 일이라면 讓步도 後退도 없었고 또 앞으로는 내가 이곳에 몸담고 있는 그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國會速記課勤務)

생활의 자각

정 명 순

요즘처럼 폭폭치는 날씨속에서는 어떤 방법의 피서도 소용이 없겠다. 아무리 찬 것을 온 몸에 끼얹어도 금방 식어버린다. 잠시 뿐이다.

벌써 이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근무한지가 두달이나 지났다. 발령이 나면서부터 출근을 하고 선생님파 언니, 오빠들 같은 신 분들 틈에서, 덜 익은 복숭아를 막 깨무는 것같은 사무실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속기 실무를 비롯하여 무엇이든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을 한가지도 못한 것 같다.

보통 때에는 10~20분 동안은 전화를 붙잡고 이야기를 늘어 놓을 수 있었던 그 비위도 일종의 공포심때문이었나? “따르릉”하는 소리에도 손이 굳어 버리는 것 같았고 얼른 누가 수화기를 들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어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괜한 해방감에 빠져도 보고 하루중 제일 기다려지고 실제로 즐거웠던 시간으로 — 옛날처럼 먹는다는 기분에

서는 아니었지만——점심시간, 즉 하늘과 땅을 마음놓고 번갈아 볼 수도 있고 머리를 이리 저리 흔들어 보기도 하고 동기들과 만나서 피로움을 털어 놓을 수도 있는 시간이 었던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나, 처음부터 왜 그렇게 차분하지 못했나, 특히, 인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나다보면 몇번씩이나 마주치는 분들이 많아 정중한 인사를 매번드리기가 아주 썩스러운 노릇이기도 했다.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누누히 강조받았던 공무원의 임무라든가 지녀야 할 자세같은 것이 억지로 귀속에 박혀지고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활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얼떨떨한 면이 많았다. 바보같이 가장 평범한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하면 그게 나무랄게 없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좀더 알찬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혼돈으로 비어진 공간의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다. 늘 마음속 깊숙이서 부터 싸아한 물줄기가 흐를수 있도록……

긴긴 날동안 까다롭기만 했고 백날을 노력해도 털끝만치의 진절도 눈에 띄이지

않는것 같았던 속기문자에 속도에 허덕이면서 답답한 마음과 조바심에 떨었던 지난날들은 그냥 넘겨 버린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새 생활을 겪고 앞으로는 더 의미있게 겪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이 시기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수는 없다. 여름 햇살에 취해서 있는 해바라기의 길다란 모습을 보기도 성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항상, 세월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저만치 앞서만 간다고 내내 불부어 살 수도 없다. 타 오르는 불꽃 그 순간 순간만을 산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사는 것. 생기와 탐구로 모든 것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찾게 되면 그것들을 한데 모아 큰 작품을, 생의 보람을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애써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찾을 필요도 없이……

계속 날씨는 덥구나,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가 버릴 잠깐 동안의 더위이긴 하지만 끓이지 않고 흐를 싸아한 물줄기로 발끝부터 온몸을 시원하게 느껴보자,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그런 혼돈으로 음침해 지지않게.

(國會速記課勤務)



어두워 질때

河 良 培

어둠이 빛을 대신할때
한낮의 殘影인 노을이 못내 서럽고
어둠을 반기는 개짖는 소리가
虛空에 흩어지면
산허리에서 불쑥 솟은 상현달이
세상을 내려본다
大地는 아직 아우성으로 충만되고
어둠기 전에
삶을 이루려는 간절한 바람은
虛事가 되어 버린채
빛이 침전되어 江을 이룬다
人間은 갑자기 神을 凝視하며
神은 차거운 미소를 띠며
永遠 한가운데에 있다
저기를 보라
거대한 傍觀者 觀照者 調整者가 있다
人間은 피로를 느껴
山을 내려오듯 현실로 돌아온다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人間은
또 새벽을 기다린다



第7回 定期總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日時：1973年 12月 22日 午前 10時
2. 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3. 出席：在籍會員 191名 (資格停止 75名 포함)中 81名出席
4. 附議案件

- 〈1〉 1973年度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 〈2〉 1974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承認
- 〈3〉 任員補選

5. 會務報告

1972. 12. 30 第6回 定期總會에서 저희들께 증책을 맡겨주셔서 미약한 힘이나마協會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라는會員 여러분의 기대에 副應하지 못한점이 많았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오늘 여러분께 그간의 會務全般에 亓한 報告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 理事選任 및 執行部署 決定

總會의 受任事項으로서 理事 蔡康熙 楊澈在 高用培 盧英民 李康賢 申世華 高太仲 이상 명을 理事로 選任하고 1972. 12. 30. 첫 理事會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執行部署를 決定하였읍니다.

總務財政部：蔡康熙 宣傳部：楊澈在 事業部：高用培 資格審査委員長：李康賢 研究委員長：高太仲 外國語部：盧英民 無任所：申世華

2. 速記無料講習(放學을 이용한 講習)

방학기간을 통해 學生과 一般人的 速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보급을 目的으로國會事務處와 朝鮮日報社의 후원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읍니다.

期	日 字	場 所	法式	人 員
冬季	73.1.16~2.4	동방속기 학원	東 邦 그래그	國語 621명 英語 145명
夏季	73.7.16~8.4	동방속기 학원 한국 "	東 邦 그래그	國語 237명 英語 52명

3.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

國會事務處와 朝鮮日報社의 후원으로 매년 1회로 하든 것을 2회로 늘려 응시자의 편의를 圖謀코자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期	日 字	場 所	應試人員	合 格 人 員
4 回 (春季)	73. 4. 28	국회속기사양성소	國語 44명	國語 1급~4명 } 22명 2급~17명 } 3급~1명 }
		동방속기학원	英語 10명	英語 5급~4명 } 5명 6급~1명 }
5 回 (秋季)	73. 10. 24	"	國語 78명	國語 1급~4명 } 34명 3급~1명 } 4급~11명 } 5급~17명 }
		"	英語 24명	英語 3급~1명 } 21명 5급~13명 } 6급~7명 }

4. 會誌發刊

會誌 速記界는 會員각위의 의견과 선배 여러분의 고견을 실어 1호당 40면이든 것을 약 60면으로 增面하여 2회발간하였으며 14호는 원고수집관계로 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5. 速記學術研究

第6回 定期總會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적에 의해 高太仲 金東遠 金善弼 金永春 趙選石 회원을 研究會員으로 위촉하고 速記의 대중화 보급을 위한 단기 장습용 速記法式이 동 연구위원회안으로 창안되어 速記界의 권위자로 구성된 諮問委員會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冬季講習에 대비하여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6. 體育大會

73.5.6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체위향상을 도모코자 會長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관계요로의 내빈들을 모시고 남이섬 잔디밭에서 축구등 예정된 行事를 여러분의 협조로 질서있게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년간의 會務를 개략적으로 報告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73. 12. 22

理事長 金 永 善

6. 議決된 案件

〈1〉 1973年度 決算

(1972.12.29~73.12.12)

세입			세출		
관항	예산액	결산액	관항	예산액	결산액
기본수입	147,000	125,700	회의비	110,000	87,310
월회비	144,000	121,500	경상비	60,000	42,480
입회비	3,000	4,200	수용비	60,000	0
사업수입	1,080,000	1,094,050	사업비	1,926,500	1,016,140
광고비	40,000	30,400	속기강습	569,200	569,200
회지대	40,000	0	회지발간	384,000	215,860
방학강습	950,000	983,050	가능검정시험	90,000	81,180
수수료			속기학술연구	152,000	7,400
가능검정	50,000	80,600	외국속기협회		
수수료			시찰및연구	588,800	0
찬조금	816,300	205,000	체육대회	142,500	142,500
잡수입	2,556	11,094	관공비	150,000	113,465
이월금	455,644	455,644	예비비	200,000	189,240
			이월금		442,753
계	2,506,500	1,891,488	계	2,506,500	1,891,488

〈監査報告書〉

定款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1973年 12月 12日 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결과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3. 12. 13

監事 柳 智 永

〈2〉 1974年度 豫算

세입		세출	
관항	예산액	관항	예산액
기본수입	150,000	회의비	104,000
월회비	144,000	정기총회	50,000

입 회 비	6,000	회 의 비	54,000
사 업 수 입	1,244,000	경 상 비	54,000
		사 무 비	54,000
광 고 료	42,000	수 용 비	5,000
회 지 대	30,000	공 과 금	5,000
		사 업 비	1,757,000
방학강습수수료	1,080,000	방학이용강습	787,500
기능검정수수료	92,000	기능검정시험	95,000
찬 조 금	400,000	속기경기대회	100,000
		회 지 발 간	480,000
잡 수 입	13,247	속기학술연구	152,000
		체 육 대 회	142,500
이 월 금	442,753	관 공 비	150,000
		예 비 비	180,000
계	2,250,000	계	2,250,000

〈3〉 任員補選

孫弘基監事의 退任으로 李龍洙會員을 監事로 補選함.

○ 議會의 職務는 좋은 法律을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法律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W·처어칠/1944. 4. 4 演說>

○ 어떠한 政府도 유력한 野黨없이는 오래 안전할 수 없다 <B·디즈레일리>

○ 人民의 自由를 위해 이렇다하게 강력하지 못한 政府가 重大危局에 대하여 그 存在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굳센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오랫동안 중대한 문제가 되어왔다. <A·링컨>

○ 나라는 利로써 利를 삼지않고 義로써 利를 삼는다. <大學>

○ 共和政體는 사치에 의해서 그리고 君主政體는 빈곤에 의해서 붕괴로 인도된다. <C·S 몽테스큐 /법의 정신>

○ 政活는 物理學보다 어렵다. <A·아인슈타인>

用語解説 (7)

研究委員會

- 工業所有權 : 새로운 發明 또는 考案商標를 보호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權利特許制度和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工業所有權은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등 4가지로 구별되는데 등록된 나라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받고 싶은 나라에도 出願을 내야 한다.
- 미나마다病 : 日本 「미나마다」市에 있는 新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工場에서 나오는 廢水에 섞인 水銀이 有機水銀化하고 이에 汚染된 魚貝類를 먹은 사람들이 有機水銀 中毒에 걸리는 公害病.
- BB運動 : Bed Breakfast의 略字「바캉스」계절에 세계도처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에게 民泊을 시킴으로써 宿食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운동.
- ABM網 : Anti-Ballistic Missile System의 略字로 「미사일」 邀擊 「미사일」 대기권 밖에서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안에서 포착 파괴하는 방어용 「미사일」
- 콩글로머리트 (Conglomerate) : 원래 地質學用語로서 덩어리 (集塊) 또는 뭉쳐진 (集成, 複合) 따위의 뜻인데 그 말에서 轉化되어 集塊企業 複合企業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美國에서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企業用語로서 자기 본래의 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기업을 買收 併合해서 급속히 성장을 이룩 巨大企業側에 끼이는 특이한 기업형태의 회사를 가리킨다.
- 落江 : 강물의 흐름에 따른 江岸의 浸蝕현상을 가리키는 말.
- 開發輸入 (Development Import Scheme) : 대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그 기술과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투하. 선진국의 수입에 적합한 개발도상국의 상품을 육성하여 그것을 수입하는 것.
- 하우스·빌 : 무역상사가 자기의 本支店앞으로 발행하는 換어음을 말하며 대개는 수출어음결제에 사용함. 어음의 발행인이거나 지급인이 同一人格이다. Documentary Clean Bill이라고도 함.
- 스트레스 (Stress) : 外界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心身の 不調和가 일어난 상태.
- 大字報運動 : 지금 中共에서 벌어지고 있는 벽보를 통한 일종의 비판운동.
- 保革逆轉 : 74.7 日本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급격한 體制變化 保는 保守 革은 革新을 뜻함.
- 패리티 (Parity) 指數 : Parity란 균형을 뜻한다. 물가를 결정하는데 생산비만 계산하지 않고 다른 물가와 균형을 맞추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나타난 다른 물가와 비율을 「패리티」지수라 한다.



○消息을 알립니다○



【1】 第4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5月 5日 京畿道 三松里 農協大學球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2】 金鎮基速記課長(本協會副會長)은 速記書記官에서 副理事官으로 昇進(2, 13) 하였고 鄭源道速記第1係長은 速記擔當官(書記官)으로 補任받아 2, 15 10時 速記士養成所에서 就任人事를 가졌읍니다.

【3】 金永善理事長 海外出張

協會 金永善理事長은 「말레이시아」議會 記錄部署의 運營狀況視察을 위해 지난 6月 8日 出國해서 香港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폴」 台北 大阪 東京을 돌아보고 6月 25日 歸國했읍니다.

【4】 5月 11日에 實施된 74年度 國會速記職公務員 採用試驗에서 6名이 合格되었읍니다.
金京中, 鄭大吉, 李美海, 孫在玉, 鄭明順, 金學順

【5】 會員動靜

(1) 退 職

○ 國會速記課에 勤務하던 孫弘基會員(73.10.1) 李龍洙會員(73.10.5) 申昌洙會員(73.12.3) 宋博文會員(74.4.2) 宋惠卿會員(74.6.31) 錢石根會員(74.7.4) 鄭應采會員(74.7.20)이 各各 退職하였읍니다.

○ 특히 10餘年間 國會速記課에 奉職하다 美國으로 移民을 가신 孫弘基會員의 現住所를 알리오니 여러會員께서는 故國의 소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Hong Ki Sohn. 137, Valley vista drive

Apt. #201 wood stock. Va 22664 U.S.A.

○ 또한 鄭應采會員은 ○○部로 采惠卿會員은 統一主體國民會議로 轉職했읍니다.

(2) 軍入隊

國會速記課에 勤務하던 金銅洙會(73年 11月) 權寧燦會員(74年 5月)이 入隊했읍니다.

(3) 復 職

軍에 服務中이던 아래 會員들이 除隊해서 速記課에 復職하였읍니다.

崔性周(73.9.14) 洪淳寶(73.12.14) 吳窩根(74.2.1) 河良培(74..3.8)

玄柄高(74.5.17)

【6】 會員加入

5月 1日	徐平吉	國會速記課勤務
6月 10日	金京中	上 同
〃	鄭大吉	上 同
〃	李美海	上 同
〃	孫在玉	上 同
〃	金學順	上 同
〃	鄭明順	上 同
6月 26日	李錫演	東邦速記學院講師

【7】 지난 2月 26日 民主共和黨 創黨 第11周年記念 黨總裁令夫人「컵」爭奪 친선탁구대회에 楊澈在會員 崔滉會員 盧熙南會員이 國會事務處「팀」 代表로 出戰해서 優勝 7月 23日 國會議長의 表彰을 받았읍니다.

【8】 國會書道會展이 지난 7月 1日부터 7日까지 열렸던 바 鄭源道會員 徐乘運會員 金允洙會員 高太仲會員 金明式會員 安喜榮會員 張僖晉會員 車公順會員의 作品들이 出品되어서 展示會를 한층 빛냈읍니다.

【9】 7月 16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人間關係改善을 위한 선후배간의 座談會가 있었읍니다(座談會 記錄參照).

【10】 慶 吊

- (1) 廉德薰會員 母親喪 1973. 12. 20
- (2) 金基英會員 結 婚 1974. 4. 14
- (3) 徐平吉會員 結 婚 〃 4. 21
- (4) 李燦鎔會員 父親喪 〃 6. 19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있는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宣傳部 Tel. 72-6140

(國會速記課 第4係)

제 5, 6 회 국어 영어 速記士 資格檢定試驗

日 時 : 1973. 10. 24 (5회) 1974. 4. 14 (6회)
 場 所 : 國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名單 —

■ 5 회 國語速記

1級 박대성, 박정호, 최용권, 박병운 (計4名)

3級 이인화 (計1名)

4級 김재학, 김난희, 김학순, 조정구, 변한수, 홍기표, 고영란, 손재옥, 장혜인, 정명순, 우해숙 (計11名)

5級 신영호, 황영순, 윤혜란, 안재길, 최수종, 배옥진, 이상래, 박혜순, 박중만, 임영순, 박봉서, 오혜신, 유영준, 최말녀, 지준호, 송교성, 이에선 (計17名)

7級 강관구 (計1名)

英語速記

3級 유문신 (計1名)

5級 방경희, 김희수, 허춘석, 이정덕, 배영민, 정준영, 윤덕진, 황명숙, 김종옥, 김귀주, 박은희, 조경혜, 홍영은 (計13名)

6級 이충희, 김재환, 김정희, 정경희, 장경애, 이희주, 최인봉 (計7名)

■ 6 회 國語速記

1級 이미해, 장경숙 (計2名)

2級 손재옥, 김학순, 이인화, 김난희, 박원철, 김경중, 홍순관, 이용춘, 고영란, 정대길, 정명순, 이에선, 이석연 (計13名)

3級 윤혜란, 홍옥표 (計2名)

5級 이미정 (計1名)

7級 장용준 (計1名)

英語速記

5級 김은숙, 송은진 (計2名)

6級 이희정, 임영신, 허유순, 이인숙 (計4名)

7級 김후남, 김동숙, 김영일 (計3名)

會 務 日 誌

73. 9. 19 第4次 資格審查委員會
1. 第5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實施키로 함
10. 24 第5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實施
1. 應試人員：國語 各級 78名
 英語 各級 24名
2. 試驗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國語)
 東邦速記學院(英語)
12. 8 第5次 資格審查委員會
第5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決定
12. 10 第5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發表
國語：各級 34名合格
英語： // 21名 //
12. 11 第45次 理事會
1. 會員加入(정혜심회원)
2. 1973年度 決算承認
3. 1974年度 事業計劃作成
4. 1974年度 歲入歲出豫算案
5. 第7回 定期總會開催계획작성
12. 18 第4次 研究委員會
1. 短期講習用教案作成
12. 22 第7回 定期總會
12. 22 第46次 理事會
1. 執行部署一部 再編成
2. 第14回 放學講習開催계획작성
74. 1. 4~1. 10 第14回放學講習受講願書接受(國會第3別館速記係事務室에서)
1. 11 第14回 放學講習開講
講義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國語速記 550名

英語 速記 163名

1. 19 第47次 理事會
 1. 第14回 放學講習決算報告
 2. 會員資格停止에 대한 審査
1. 25 1974年度 法人定期報告書提出(文化公報部)
1. 31 第14回 放學講習修了
修了人員：國語速記 316名(57%)
 英語速記 82名(50%)
2. 16 第1次(74年度) 資格審査委員會
 1. 會員除名에 대한 審査
(42名除名：死亡者 및 行方不明確者)
2. 18 第2次 理事會
 1. 速記料金現實化
 2. 會員除名(42名)決義
2. 18 第2次 資格審査委員會
第6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實施계획작성
4. 11 第49次 理事會
法院書記速記教育의 諸問題討議
3. 30 第50次 理事會
英語速記座談會開催계획작성
4. 6 英語速記座談會
4. 14 第6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實施
應試人員：國語速記各級 48名
 英語 " 13名
試驗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東邦速記學院
4. 23 第51次 理事會
第4回 速記人體育大會開催계획작성
4. 26 第3次 資格審査委員會
第6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決定
4. 28 第6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發表
國語速記：各級 19名合格
英語 " " 9" "
5. 5 第4回 速記人體育大會
場所：경기도 원당 農協初級大學

蹴球優勝：백 호 팀 準優勝：청 룡 팀
陸上(綜合)：황 소 팀 " : 백 호 팀

6. 27 第4次 資格審査委員會

新入會員加入審査

7. 10 第52次 理事會

1. 第4回 速記人體育大會決算報告

2. 新入會員加入承認

(徐平吉 國會速記課 金京中(〃) 孫在玉(〃) 鄭大吉(〃) 金學順(〃)

李美海(〃) 鄭明順(〃) 李錫演(東邦速記學院講師))

3. 第15回 放學講習開催계획작성

7. 16 先·後輩와의 座談會

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7. 22~7. 28 第15回 放學講習受講願書接受

(國會第3別館速記第5擔當事務室에서)

7. 29 第15回 放學講習開講

講義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國語速記 213名

英語速記 84名

8. 17 第15回 放學講習修了

修了人員：國語速記 136名 (64%)

英語速記 49名 (58%)

<總務部 提供>

原 稿 募 集

다음 제15호는 12月末에 發刊됩니다.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
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
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本協會 宣傳部(國會速記課第4係) Tel (72) 6140

◇表紙그림.....세로 가로 15cm정도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回想記.....200字原稿紙 15~25枚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詩, 時調, 散文, 기타提言등,

※ 採擇된 原稿에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編輯記

○ 8월에 들어서고도 그치지 않는 빗줄기가 더위를 잊게한 반면에 우울한 여름을 만들더니 늦장마가 거치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鎔鑛爐를 연상케 한다. 이제 돌판의 五穀도 가을의 풍성함을 위해 마음껏 繁盛하리라.

○ 速記人의 일은 갑자기 밀물처럼 밀려들고 休火山같이 멎는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生의 旅程속 순간 순간마다 最善이란 意味를 부여할때 그 삶 자체가 崇高한 價値를 지닐게 아닌가

○ 速記界 14號가 늦게나마 여러회원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넓은 理解를 바라며 編輯室은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듯 하다.

여러회원의 사랑속에 전속기인의 유일한 代辦誌로서 速記界가 커갈것을 다짐한다.

—良—

季刊 速記界 <第14號>

1974年 10月 31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楊 澈 在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Tel (72) 6140 (75) 6940·6987